nov. 2015

극장과 나

11

THEATER & I



언제나 해피엔딩
박해미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신임 조직위원장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상반기 작품 리뷰
9개 레퍼토리의 탄생 〈2015 무용창작산실〉
창작의 향연 〈제36회 서울무용제〉
세계무대로의 도전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s declines,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때때로 시들지만, 그대가 지닌 아름다움은 잃지 않으리.

로버트 윌슨, 〈셰익스피어 소네트〉 제작노트 中

‘사랑에 대한 시의 전범(典範)’이라 불리는 154편의 〈셰익스피어 소네트〉 중에서도
‘짝사랑의 고통, 인간의 필멸(必滅)과 시(詩)의 영원성’을 다룬 시 25편을 무대화했다.
브레히트가 창단한 ‘독일 연극의 역사’라는 극단 베를린 앙상블의 수식어에 걸맞은 대작이다.

가브리엘라 카리조&프랑크 샤흐티에, 〈아 루에〉 제작노트 中

〈아 루에〉는 당신을 환상적 여행으로 이끌며 아득한 기억, 환상, 두려움, 현실과 꿈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있다. 일련의 장면이 뒤틀린 조합으로 연결되어 피핑 톰 특유의
아크로바틱한 춤, 연극적 요소, 시각효과와 음악이 마치 영화와 같은 장면을 구성하며,
환상에 빠진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크리스티앙 리조, 〈사키난〉 제작노트 中

〈사키난〉의 안무 구성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함축적인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배낭을 메고 걸터앉은 남자, 한 구석에 서 있는 남자, 화초를 든 남자 등 일상적인
오브제들과 함께하는 무용수의 몸짓은 ‘우울’과 ‘추방’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만든다.
조국인 터키를 떠나 프랑스에서 춤을 배우고 다시 베를린으로 이주한 무용수의 개인사를
작품에 투영하여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에 놓인 개인의 모습을 보다 섬세하게 그려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베를린 앙상블

2015. 10. 15(목) ~ 10. 17(토)

OH, LEARN TO READ WHAT
SILENT LOVE HATH WRIT.
TO HEAR WITH EYES BELONGS
TO LOVE'S FINE WIT.

오, 말없는 사랑이 써놓은 걸 읽어주오.
눈으로 듣는 건 사랑의 예술적 재치라오.



©Sang-hoon Ok

〈아 루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피핑 톰 무용단

2015. 10. 2(금) ~ 10. 3(토)

EVERYTHING IS BORROWED!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Sang-hoon Ok

〈사키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

2015. 10. 12(월) ~ 10. 13(화)



AN ADVENTURE IN SEARCH OF AN EXILE FROM ONESELF AND LIBERATION

내면의 우울과 해방을 찾는 새로운 모험

©Sang-hoon Ok

〈실화에 따르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

2015. 10. 15(목) ~ 10. 16(금)

AN ENCOUNTER BETWEEN THE MODERN AND TRADITIONAL WORLDS IN HARMONY

현대와 전통의 빛나는 조우



©Sang-hoon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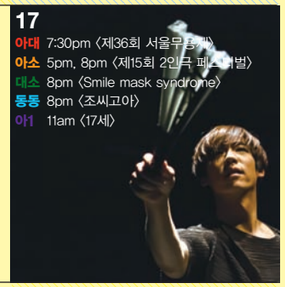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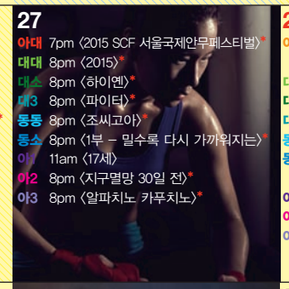
ⓒ(사)한국무용협회
〈제36회 서울무용제〉

11

Calendar

아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아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대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대3 대학로예술극장 3관
동동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동소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동꼭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아1 아트원씨어터 1관
아2 아트원씨어터 2관
아3 아트원씨어터 3관

* 공연단체의 사정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3 3pm 〈파이터〉 동동 4pm 〈미국아버지〉 아1 2pm, 6pm 〈만추〉 아2 2:30pm, 6pm 〈라이어타임〉 아3 3pm 〈안녕, 앙코르〉	**2** 	**3**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3pm 〈제3회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전〉 아1 8pm 〈만추〉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안녕, 앙코르〉	**4**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8pm 〈붓다이야기 첫 번째 – 버려야 할 것들...〉 아1 8pm 〈만추〉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안녕, 앙코르〉 	**5**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4pm, 8pm 〈붓다이야기 첫 번째 – 버려야 할 것들...〉 대3 8pm 〈파이터〉 아1 8pm 〈만추〉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안녕, 앙코르〉	**6**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에릭사티〉 아1 8pm 〈만추〉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안녕, 앙코르〉	**7**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3 3pm, 6pm 〈파이터〉 동동 3pm, 7pm 〈에릭사티〉 아1 3pm, 7pm 〈만추〉 아2 3:30pm, 7pm 〈라이어타임〉 아3 3pm, 7pm 〈안녕, 앙코르〉
8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3 3pm 〈파이터〉 동동 4pm 〈에릭사티〉 아1 2pm 〈만추〉 아2 2:30pm, 6pm 〈라이어타임〉 아3 3pm 〈안녕, 앙코르〉	**9**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대소 8pm 〈뉴턴의 3법칙〉	**10**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8pm 〈뉴턴의 3법칙〉 아2 8pm 〈라이어타임〉	**11**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8pm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동소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12**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8pm 〈화(火), 화(和) – 바람을 만나다〉 대3 8pm 〈파이터〉 동소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아2 8pm 〈라이어타임〉 아3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13** 대소 8pm 〈거울 속의 거울〉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조씨고아〉 아2 8pm 〈라이어타임〉 	**14**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5pm 〈거울 속의 거울〉 대3 3pm, 6pm 〈파이터〉 동동 3pm, 7pm 〈조씨고아〉 동소 3pm, 7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동꼭 7pm 〈시민들, 연극을 꿈꾸다!〉 아2 3:30pm, 7pm 〈라이어타임〉 아3 7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15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7pm 〈길 떠나는 가족〉 대3 3pm 〈파이터〉 동동 4pm 〈조씨고아〉 동소 4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동꼭 4pm 〈시민들, 연극을 꿈꾸다!〉 아2 2:30pm 〈라이어타임〉 아3 4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16** 대대 8pm 〈길 떠나는 가족〉	**17**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8pm 〈Smile mask syndrome〉 동동 8pm 〈조씨고아〉 아1 11am 〈17세〉	**18**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8pm 〈Smile mask syndrome〉 동동 8pm 〈조씨고아〉 동소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아1 11am 〈17세〉 아3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19** 아소 5pm, 8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대 8pm 〈소무〉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조씨고아〉 동소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동꼭 8pm 〈육쌍둥이〉 아1 11am 〈17세〉 아3 8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20**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대대 8pm 〈소무〉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조씨고아〉 동꼭 8pm 〈육쌍둥이〉 아1 11am 〈17세〉	**21** 아대 7:30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5pm 〈LA DANAIDE〉 대3 3pm, 6pm 〈파이터〉 동동 3pm, 7pm 〈조씨고아〉 동소 3pm, 7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동꼭 3pm 〈육쌍둥이〉 아1 3pm, 6pm 〈17세〉 아3 7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22 아대 5pm 〈제36회 서울무용제〉 아소 3pm, 6pm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대소 5pm 〈LA DANAIDE〉 대3 3pm 〈파이터〉 동동 4pm 〈조씨고아〉 동소 4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동꼭 4pm 〈육쌍둥이〉 아1 4pm 〈17세〉 아3 4pm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축제〉	**23** 대대 8pm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24** 아소 7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대 8pm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동동 8pm 〈조씨고아〉* 동꼭 8pm 〈육쌍둥이〉* 아1 11am 〈17세〉 아2 8pm 〈지구멸망 30일 전〉*	**25** 아대 7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동동 8pm 〈조씨고아〉* 동꼭 8pm 〈육쌍둥이〉* 아1 11am 〈17세〉 아2 8pm 〈지구멸망 30일 전〉*	**26** 아소 4pm, 7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조씨고아〉* 동소 8pm 〈1부 –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동꼭 8pm 〈육쌍둥이〉* 아1 11am 〈17세〉 아2 8pm 〈지구멸망 30일 전〉*	**27**  아대 7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대 8pm 〈2015〉* 대소 8pm 〈하이엔〉* 대3 8pm 〈파이터〉* 동동 8pm 〈조씨고아〉* 동소 8pm 〈1부 –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아1 11am 〈17세〉 아2 8pm 〈지구멸망 30일 전〉* 아3 8pm 〈알파치노 카푸치노〉*	**28** 아소 4pm, 7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대 5pm 〈2015〉 대소 4pm, 7pm 〈하이엔〉* 대3 3pm, 6pm 〈파이터〉* 동동 3pm, 7pm 〈조씨고아〉* 동소 3pm, 7pm 〈1부 –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아1 3pm, 6pm 〈17세〉* 아2 4pm, 7pm 〈지구멸망 30일 전〉* 아3 3pm, 7pm 〈알파치노 카푸치노〉*
29 아대 6p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대소 4pm 〈하이엔〉* 대3 3pm 〈파이터〉* 동동 4pm 〈조씨고아〉* 동소 4pm 〈1부 –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동꼭 4pm 〈육쌍둥이〉* 아1 4pm 〈17세〉* 아2 3pm, 6pm 〈지구멸망 30일 전〉* 아3 3pm 〈알파치노 카푸치노〉*	**30**  	 ⓒ마루컴퍼니 〈파이터〉	 *문화가 있는 날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신임 조직위원장 박해미

nov. 2015

pre-

re-
inter-

01 제작노트

STAGE CUT
02 〈셰익스피어 소네트〉
04 〈아 루에〉
06 〈사키난 & 실화에 따르면〉

CALENDAR
08 11월의 주목할 만한 공연 정보
10 Contents

MEET
12 11월의 만남 : 박해미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신임 조직위원장

NOW ON
22 〈2015 무용창작산실〉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27 파사무용단 〈붓다이야기 첫 번째 – 버려야 할 것들...〉
세상에서 버려야 할 세 가지 독
28 (사)한국무용협회 〈제36회 서울무용제〉
창작의 향연
30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세계무대를 향한 안무가의 도전
32 극단 에이치프로젝트 〈하이엔〉
고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삶
33 마루컴퍼니 〈파이터〉
링 위에서 만나는 우리의 인생
34 안산문화재단 〈에릭사티〉
21세기 천재를 위한 음악극
35 극단 해를보는마음 〈조씨고아〉
다시 찾는 삶의 의미
36 (사)한국소극장협회 〈2015 D.FESTA〉
소극장에서 즐기는 연극의 매력
37 명품극단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현대문학 3부작 첫 번째 프로젝트
38 플레이씨어터 즉각반응 〈육쌍둥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불
39 (주)HJ컬처 〈만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찾아온 사랑
40 (사)뮤지컬창작터하늘에 〈17세〉
41 H&H 〈라이어타임〉
42 (주)심포니나인 〈지구멸망 30일 전〉
43 극단 유목민 〈안녕, 앙코르〉

VIEW WITH
46 2015 SPAF 상반기 [연극] 분야
안개가 자욱하다, 연극은 무엇을 할 것인가
52 2015 SPAF 상반기 [무용] 분야
2015 SPAF를 빛낸 세계적인 무용 단체

TIMES
58 극장이 있는 풍경
Caption : 두 개의 언어, 하나 된 감동

CLASS
62 2015 대학로붐업프로젝트 마지막 공연
당신의 악기를 가져오세요 & 팝업시어터 스케치
66 색다른 경험, 관극가이드
공연예술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프로젝트

ART STORAGE
68 예술자료원 기록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리메이크 연극을 돌아보다

STAGE
72 대학로 주요 공연 캘린더

LETTER
74 11월의 관람후기: 관객 장희영 님

BEHIND
81 공연예술센터 문화자원봉사자 배성희, 손옥희, 조영남

2015년 11월호 '극장과 나'
통권 70호

표지
박해미
배우

사진
정현석
Photo Factory Studio


12


23


28


46


62


66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극장과 나〉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합니다.

발행처 한국문학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Arts Council Korea - Performing Arts Center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02-3668-0007

발행인 박명진 편집인 유인화 기획 이효정
편집위원 정철, 황금실, 송윤정, 김소연, 이지영, 김준수, 하원빈(연수단원)
제작 꽃피우다 02-741-6795 인쇄 (주)온리원씨앤피

글 김선녀
사진 정현석 (Photo Factory Studio)

비극보다는 희극이 좋고, 혼자 하는 고독한 연기보단 사랑받는 연기자가 맞다고 믿는다. 카메라를 마주보는 드라마보다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가 편하고, 어색한 서양극보다는 순수 창작극이 마음에 더 와 닿는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상관없는지도 모른다. 2인극 페스티벌의 수장을 맡은 박해미에게는 경계나 영역이라는 선은 별 의미가 없다. 배우로서 그저 즐겁게 만드는 공연이면 무엇이든 다 괜찮다.

Because You Are Beautiful!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신임 조직위원장

언제나 해피엔딩박해미

더 많이 함께해야 그게 축제죠

극장과나(이하 극) 연극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2인극 페스티벌의 신임 조직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박해미(이하 박) 그러게요.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2인극 페스티벌의 연출자와 2년 전 청소년 연극을 같이 작업했었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한번 좋은 기회가 생기면 다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 축제가 되었네요.

극 새로운 수장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박 올해는 사실 배우려고 온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일궈온 좋은 축제를 열심히 지켜보고 제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해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2인극 페스티벌을 알리는 게 제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극 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나요?

박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데, 가장 욕심이 나는 건 일단 대학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축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2인극의 장점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에 대한 선입견에서도 벗어나고, 연극인들만 참여한다는 생각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극 전문 배우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박 참여하는 사람이 반드시 연극인일 필요는 없어요. 배우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극인이 될 수 있어요. 배우는 스스로 규정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넘게 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했다고 연극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고요.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배우에요. 나중에는 10~20분짜리 짧은 공연의 참여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좀 더 적극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극 2인극에 직접 참여하셔도 재밌을 거 같아요.

박 안 그래도 출연 생각을 했어요.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모노도 있고, '사네마네'라는 제목으로 2인극 생각도 했었는데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배우로든 연출로든 함께하고 싶어요.

극 2인극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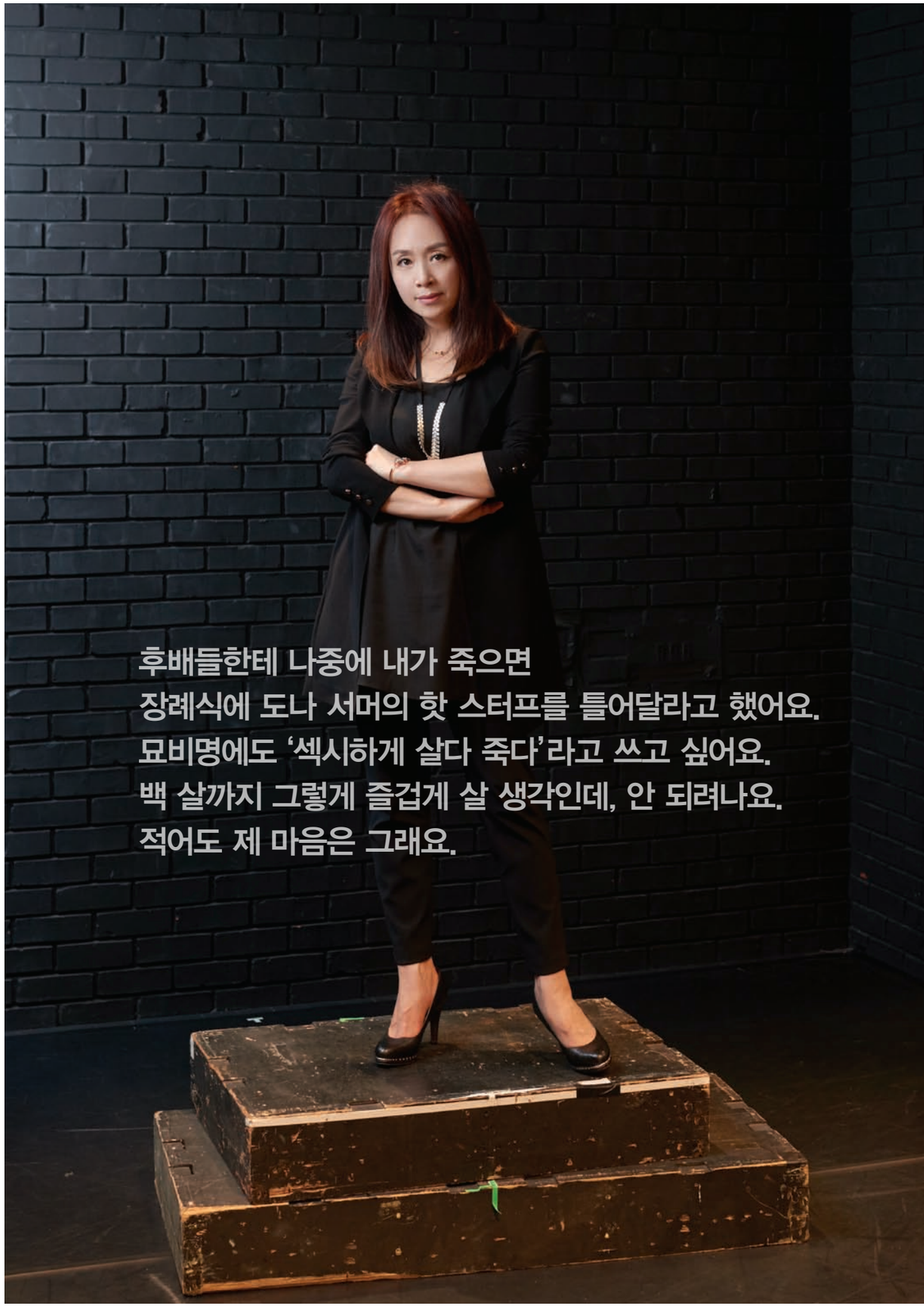
박 공연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 제작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점이 좋죠.(웃음) 무대에 아무 것도 없어도 마음껏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극 극적 장치가 많지 않으니 이야기의 힘이 무척 중요할 거 같아요.

박 이야기도 탄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배우의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작품이나 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대는 배우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의 능력에 따라 작품의 시간이 길든 짧든 무대를 쥐락펴락할 수 있거든요.

극 이번 선정작들을 미리 만나보셨나요?

박 소재가 하나 같이 다 다르고 재밌어요. 흡입력도 높고, 금세 호기심이 들게 만들죠. 이것저것 읽다보니까 심사를 한다는 마음보다 영화에 쓰면 좋겠다 싶은 내용도 눈에 들어오고, 요즘 하도 막장 드라마를 많이 찍고 있다 보니 가슴 따뜻한 얘기로 드라마를 만들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후배들한테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도나 서머의 핫 스터프를 틀어달라고 했어요. 묘비명에도 '섹시하게 살다 죽다'라고 쓰고 싶어요. 백 살까지 그렇게 즐겁게 살 생각인데, 안 되려나요. 적어도 제 마음은 그래요.



박 해 미

1964년생. 1984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데뷔했으며 이후 〈맘마미아〉, 〈브로드웨이 42번가〉, 〈키스앤메이크업〉, 〈아이 두 아이 두〉, 〈캣츠〉, 〈뉴 몰리쫄리〉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현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비롯해 〈웃어라 동해야〉, 〈오로라 공주〉 등 현재까지 드라마와 영화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해미뮤지컬컴퍼니를 운영하며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방송예술대학 공연예술계열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는 거죠

극 2인극에 참여하는 극단이나 젊음 배우들을 보면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박 저도 어릴 땐 연극을 했었어요. 〈품바〉도 하고, 〈셰익스피어〉나 〈햄릿〉 같은 작품에도 출연하고요. 잘 상상이 안가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는 게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극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저는 방송이나 무대 양쪽을 모두 하는 입장에서 2인극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신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어디든 용기를 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카페든, 길거리든, 기업이든 찾아가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고 일을 따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대에서 관객이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 나서야죠.

극 장르나 매체 같은 영역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같아요.

박 저한테는 다 똑같아요. 영역에 대한 벽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극 작품으로 단편 영화에 출품할 수도 있고요. 뭐든 크로스가 가능해요. 배우는 다 배우예요. 연극배우, 영화배우 조건이 따로 있나요? 연기만 잘하면 되죠. 무대, 스크린 모두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배우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해요.

극 하고 계신 많은 일 중에서 뭐가 가장 재밌으세요?

박 당연히 무대죠. 드라마는 조명 들고 있는 스텝을 바라보고 감정을 잡아야 해요. 그러다 컷 하면 다시 쉬고, 다시 숏이 들어가면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돼요. 무대는 내 감정을 죽 끌고 가니까 쌓이고 쌓여서 좋은 연기가 나오게 되죠.

극 예능 프로에도 자주 출현하셨죠.

박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예능이 가장 안 맞아요. 예능은 리액션이 중요한데 저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일부러 부자연스럽게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생태에 안 맞아요.

극 싫든 좋든 뭐든지 하는 걸 보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 뭐든 다 해봐야 해요. 저는 다 덤벼들어서 해보는 편이거든요. '국극(國劇)'이라고 알아요? 저 예전엔 국극도 해봤어요. 창극인데 거기서 고령의 여배우분들이랑 〈심청전〉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도전해보면 다 도움이 돼요. 왜 연극만, 뮤지컬만, 드라마만 그렇게 한 분야만 고집해요? 다 해봐야죠.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배우잖아요.

극 '해미뮤지컬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린 것도 또 다른 도전이었나요?

박 누군가를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도전이에요. 청소년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요. 저도 아프게 살아와서 아이들의 상처를 잘 알아요. 누군가는 울타리가 되어 줘야하거든요. 청소년들의 아픔을 음악으로 위로주려는 거죠.

극 〈NEW 하이파이브〉라는 뮤지컬을 무료로 순회 공연한다고 들었어요.

박 아이들이 아이돌 스타만 보고 소리 지르고 좋아할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음악이 나오고 배우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눈이 동그라져서 핸드폰을 다 내려놔요. 넋을 놓고 무대를 바라보고,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환호하고 소리쳐주죠. 마치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 희열이 느껴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이돌이 아닌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인 거예요.

극 2인극은 인간관계를 가장 밀도 있게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연극이 아닌 삶에서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박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면 소통은 다 이루어져요. 사기를 당한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못 믿겠다 싶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믿으려고 해요. 이 사람도 좋은 점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마음도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극 박해미씨가 가진 소통의 가장 큰 장점은 유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박 맞아요.(웃음)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죠.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더 잘나고 나은 것도 없죠. 저는 코미디가 좋아요. 즐겁게 살고 싶고. 그래서 항상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극 가령 해피엔딩 같은 삶이요?

박 그런 거죠. 제 작품관의 핵심도 '재미'에요. 미쳐서 배꼽 잡다가 한 순간 눈물 흘릴 수 있는 순간만 주는 거예요. 비극을 싫어해요. 어차피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인데 왜 자꾸 비극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즐겁게 살다 가아죠.


〈흑백다방〉

200번째 2인극을 만나다

제15회 2인극 페스티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극적인 탐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시작된 〈2인극 페스티벌〉이 2015년 열다섯 번째 페스티벌을 맞이한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축제로 성장한 2인극 페스티벌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순수한 연극 정신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불태울 것이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3(화) ~ 11. 22(일)
평일 5pm, 8pm / 주말 3pm, 6pm (월, 금요일 공연 없음)

스튜디오76
2015. 11. 4(수) ~ 11. 29(일)
평일 8pm / 토요일 3pm, 7pm / 일요일 3pm (월, 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3676-3676
관람료 일반 25,000원
학생 15,000원
패키지티켓 100,000원

주최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공상집단 뚱딴지, 극단 바람풀
극단 사조, 극단 씨어터 백
극단 인어, 극발전소 301,
극단 한양레퍼토리, 프로젝트 옆집누나
극단 M.Factory, 극단 Theatre201
후원 서울문화재단

새롭게 진화하는 열다섯 번째 축제

오는 10월 31일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한국공연예술의 중심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및 스튜디오76에서 한 달 동안 10개의 공식참가작, 4개의 기획초청작, 1개 특별작이 참여해 의미 있는 전문예술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5회째를 맞이해 지난 14년을 정리하고 새롭게 진화 발전해 가는 축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보다 창의적인 젊은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극단마다 고유의 색채를 담보로 한 2인극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참여 단체의 색깔, 참여 작가와 연출의 경향, 그리고 참여배우들의 연기가 밀도 있게 표현되는 특별한 페스티벌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는 연극

이번 2인극 페스티벌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기로 했다. 실내 공연장과 야외무대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어우러져, 다각적인 형태의 자유로운 예술작품을 접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순수공연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표현 양식의 새로움과 움직임의 독창성 등을 살려 시민들과 함께 흥미진진한 극적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장소에 따른 극적 반응의 의외성을 마음껏 즐기는 특별한 축제이다. 더불어 두 명의 배우가 자신의 몸과 열정적인 영혼으로 이끌어 나가는 독창적인 2인극의 세계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살아 숨쉬는 '인간'의 진면목을 축제를 통해 실감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 사고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2인극 페스티벌 창시자 김진만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박해미



〈2인극 페스티벌〉 공연 소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화~목 5시, 8시 / 토~일 3시, 6시 월, 금 공연 없음			스튜디오76 수~금 8시 / 토 3시, 7시 / 일 3시 월, 금 공연 없음		
11. 3 ~ 11. 5	기획초청작	프로젝트 연 〈마지막 춤〉	11. 4 ~ 11. 8	공식참가작	극단 한양레퍼토리 〈별이 빛나는 밤〉
	공식참가작	극단 M.Factory 〈진홍빛 소녀〉			
11. 7 ~ 11. 8	기획초청작	극단 후암 〈흑백다방〉	11. 11 ~ 11. 15		프로젝트 옆집누나 〈싼 마이 히어로〉
	공식참가작	Theatre 201 〈고사〉			
11. 10 ~ 11. 12	기획초청작	극단 앙상블 〈노인과 바다〉	11. 18 ~ 11. 22		극단 바람풀 〈요셉과 마리아〉
11. 14 ~ 11. 15	기획초청작	극단 혼 〈사라치〉			
11. 17 ~ 11. 19	공식참가작	극단 씨어터 백 〈자살 당한 자〉	11. 25 ~ 11. 29		극단 사조 〈Box-er〉
		극단 인어 〈어메이징 그레이스〉			
11. 21 ~ 11. 22	공식참가작	극발전소 301 〈영웅의 역사〉			
		공상집단 뚱딴지 〈맴〉			

11. 9. — 11. 28.
MON. SAT.

대학로예술극장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공연

2015

창작산실

티켓가격

대극장 R석 20,000원
S석 15,000원
소극장 전석 15,000원

예매처

공연예술센터
Performing Arts Center
02-3668-0007
www.koreapac.kr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re-

근사한 계절, 11월의 대학로는 신비롭고 고혹적인 무용 공연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우수한 무용 작품의 창작부터 제작까지 지원해주는 〈2015 무용창작산실〉이 선보이는 창작무용공연 9편이 11월 한 달 동안 대학로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벌써 서른여섯 번째 행사를 맞이하는 〈제36회 서울무용제〉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무용 공연에 깊이 빠져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실험적인 주제와 형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줄 연극 공연도 다양합니다. 여배우들이 링 위에서 실제 경기를 펼치는 실화극 〈파이터〉, 무협활극 〈조씨고아〉, 현대문학을 새롭게 연극화한 현대문학 3부작의 첫 번째 공연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지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30일 동안 진정한 사랑을 찾는 〈지구멸망 30일 전〉까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하나 콕 집어 고르기가 힘드니 아무래도 이번 달은 대학로를 자주 찾아야할 것만 같습니다.

2015
무용창작산실

창작산실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행해온 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창작에서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대표 공연 레파토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학로예술극장
2015. 11. 9(월) ~ 11. 28(토)

티켓가격 대극장 R석 20,000원
S석 15,000원
소극장 전석 15,000원
예매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화 火, 화 和 – 바람을 만나다
Rendezvous with breeze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11(수) ~ 11. 12(목) 8pm

안무 정신혜
단체 정신혜무용단
러닝타임 70분

조화롭다. 조화롭고자 애쓰는 것이다.
Harmonious. Make an effort to create harmony.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과 물질이 만나고 거기에 어떠한 현상이 보태진다면 그 결과물은 어떤 물성을 지니게 될까? 각기 다른 성질이 만나는 결합, 즉 융합에 대한 이미지 작업과 그 조화에 의해서 탄생되는 새로운 성질에 대한 이야기. 이 작품은 그 모든 과정과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고민과 좌절 그리고 도전과 환희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국 창작 춤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안무가 정신혜의 〈화火, 화和〉는 확장된 무대와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속에 한국 창작 춤의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을 것이다.

길 떠나는 가족
Family on the way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15(일) 7pm / 11. 16(월) 8pm

안무 최소빈
단체 최소빈발레단
러닝타임 60분

길 떠나는 가족이여, 어디를 향해 그리도 바삐 걸음을 재촉하는가.
연화(緣話)가 수놓은 길, 그 위로 '시간'을 실은 수레가 서서히 움직인다.
A family on the road, where are you heading in such a rush
A wagon loaded with 'time' is moving slowly on the path Yeonhwa had t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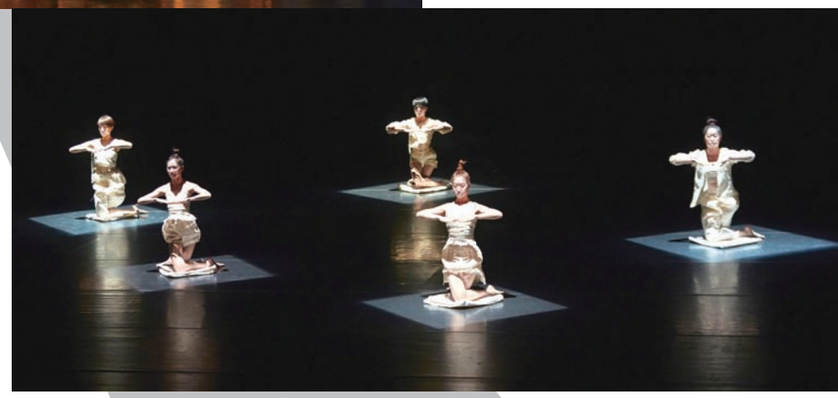
어제의 붓 터치는 오늘이 되었고, 오늘의 굵은 붓 터치는 내일과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비로소 하나가 되었을 때 분명 그 곳엔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소박한 일상이 특별함으로 다가오던 느낌, 소소한 기쁨이 행복으로 연결되던 모든 순간 이중섭에겐 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소무
somoo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19(목) ~ 11. 20(금) 8pm

안무 김보라
단체 아트 프로젝트 보라
러닝타임 45분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여성의 존재는 현재 어떻게 비춰질까?
여성의 몸, 그 원초적 몸의 언어를 보라.
Female body image and existence, how it is portrayed.
Female body and its primitive language.

만약 여성의 성기를 크게 확대하여 분절해 관찰한다면 시각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추측컨대 그것은 몸일 뿐이다. 여성의 뼈 구조와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확대하여 움직임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몸 안에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말과 글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명징한 몸의 언어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작품 〈소무〉는 여성을 바라보는 위선과 교양으로 포장되고 은폐된 수많은 사회적 대화와 관계의 숨은 의도를 직시하고, 그 이면의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은 시도이다.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An Joong Geun, a Dance in the Heaven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23(월) ~ 11. 24(화) 8pm

안무 문병남
단체 M 발레단
러닝타임 65분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
When the joyous shout of Korea's independence reaches heaven, I will willingly dance and cry out, "Hurr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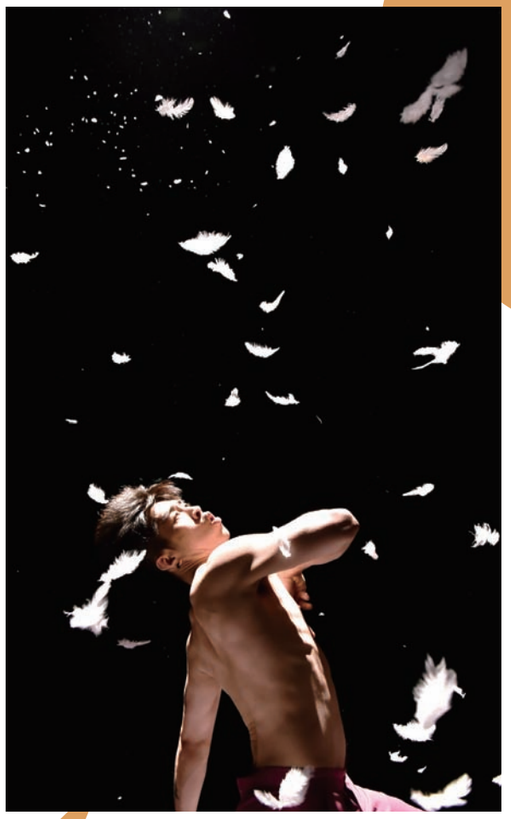
광복7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짧은 생을 재조명한다.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으라는 강인한 어머니와 안중근의 죽음을 가장 슬프게 받아드렸을 그의 아내,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 직면한 안중근. 대한독립을 위해 평생을 목숨 바친 안중근의 삶을 드라마틱한 발레로 그려내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자 한다. 과연 안중근의사는 우리의 현시대를 보며 천국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수 있을까?



2015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27(금) 8pm / 11. 28(토) 5pm
안무 미나유
러닝타임 60분

감정과 이성이 마비된 도시 그리고 메말라버린 현대인. 현재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흔들거린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위기, 사건·사고들, 자연재해들로 인해 '현재'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불안하다. 국내 현대무용의 1세대 미나유의 신작 〈2015〉는 생명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라는 본능과 반대로 진행되는 현재, 우리는 언제까지 반대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아 줄 것이다.



뉴턴의 3법칙

The law of motion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9(월) ~ 11. 10(화) 8pm

안무 안수영
단체 안수영컴퍼니
러닝타임 60분

강연형식의 새로운 무용공연 뉴턴의 3법칙을 움직임으로 만들어 말한다.
A new type of dance performance. Newton's three laws of motion in Motion.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 '뉴턴의 3법칙'을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일상 속 움직임을 재발견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행동을 포함하여 주변 사물에 숨어있는 과학이론을 인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뉴턴은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내고 3가지 이론으로 만들어 설명한다. 과학과 무용을 융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연하는 색다른 무용공연 〈뉴턴의 3법칙〉은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서 과학적 지식까지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거울 속의 거울

Mirror in the Mirror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13(금) 8pm / 11. 14(토) 5pm

안무 김재승
단체 마홀라 컴퍼니
러닝타임 60분

너와 내가 만나 서로 닮아가며, 깨닫게 되는 나의 고백.
My realization and confession through the times we spend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become like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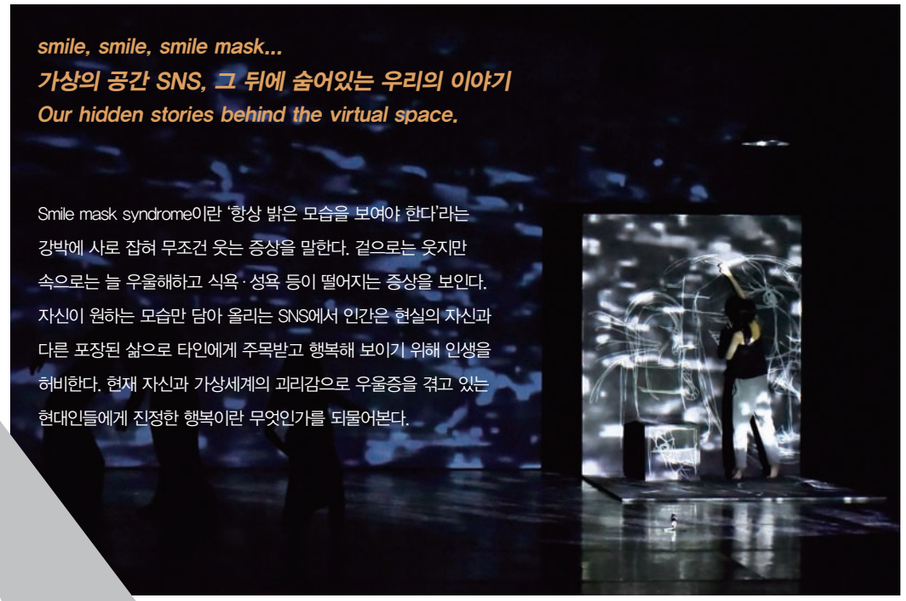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나와 닮아가는 모습에 기쁘고, 나와 다른 모습에 설레고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된다.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중독처럼 계속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의 일과 너무나 닮아있다. 이 사랑이야기의 대상은 단순히 연인이 아니다.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나의 춤·노래·음악에 대한 고백이다.



Smile mask syndrom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17(화) ~ 11. 18(수) 8pm

안무 이정연
단체 이정연댄스프로젝트
러닝타임 60분



smile, smile, smile mask...
가상의 공간 SNS,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이야기
Our hidden stories behind the virtual space.

Smile mask syndrome이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 잡혀 무조건 웃는 증상을 말한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우울해하고 식욕·성욕 등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 담아 올리는 SNS에서 인간은 현실의 자신과 다른 포장된 삶으로 타인에게 주목받고 행복해 보이기 위해 인생을 허비한다. 현재 자신과 가상세계의 괴리감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되물어본다.

LA DANAID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21(토) ~ 11. 22(일) 5pm

안무 최진수
단체 최진수발레단
러닝타임 45분

로댕의 연인이자 조수였던 끌로델. 그러나 그녀의 재능을 질투하며 위기감을 느낀 로댕은 끌로델을 떠나버리고 버림받은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비극적 생을 마감한다. 로댕으로 인해 생긴 여러 심리적 갈등과 애증의 감정 속에서 탄생했을 그녀의 실제작품을 무용 장면으로 재조명한다. 그녀의 작품에 녹아있는 당시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움직임과 이동막의 입체적 움직임은 시각적인 무대구성을 더해 20세기 끌로델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 끌로델.
그녀가 로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더라면
The artist, Camille Claudel and her days.
What would have happened if she had not met Rodin.

파사무용단

세상에서 버려야할 세 가지 독

붓다이야기 첫 번째 – 버려야 할 것들...



우리의 인연에 대한 물음과 원인을 찾는 과정
붓다의 3독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다

현대에서 버려야 할 세 가지 독

한국적 현대무용으로 독보적 위치에 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파사무용단의 2016년 신작 〈붓다이야기 첫번째 – 버려야할 것들...〉이 오는 11월 5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첫 막을 올린다. 붓다시리즈(붓다, 일곱걸음의 꽃)로 2년 연속 전석매진이라는 쾌거를 올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파사무용단의 이번 작품은 붓다가 이야기하는 불교의 3독인 탐, 진, 치를 주제로 하여 현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이기'에서 비롯된 다양한 사회문제의 근본원인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독이라 보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사회의 문제들이 치유되길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그리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

우리는 흔히 지나친 욕망의 꿈을 부풀리며, 이룸에 대해 집착한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집착에 동반하는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는다. 이번 작품은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시각으로 탐, 진, 치를 무대 위에 객관화하려고 한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들이 일으키는 삼독의 다양한 양상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하며, 라이브 음악과 몸의 움직임이 즉흥적 교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한 상황의 주제를 무용수들이 음악과 서로 대화하듯 주고받는다. 무거운 주제를 때로는 가볍게 터치하며, 에너지(氣運)의 흐름을 좇아 자연세계와 일체되는 느낌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4(수) 8pm / 11. 5(목) 4pm, 8pm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2272-2152
관람료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20,000원
관람연령 7세 이상
공연시간 60분

제작 파사무용단
주관 E-won Art Factory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대한불교 조계종,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세계승가회
안무 황미숙
무대디자인 표종현
의상디자인 최인숙
출연 황미숙, 성유진, 박성률, 최명현 신아람, 박창규, 권예희, 박관정

창작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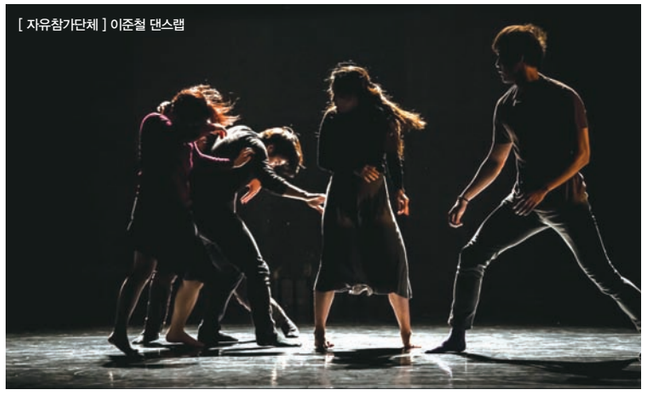
제36회 서울무용제

2015년 11월 3일 서른여섯 번째 서울무용제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성대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역대 무용제 수상 단체를 비롯해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창작무용을 소개하는 '서울무용제'는 우수한 창작무용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1979년부터 시작된 행사이다.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수놓는 훌륭한 무대를 감상하며 가을의 향수를 느껴보자.


[자유참가단체]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3(화) ~ 11. 21(토) 7:30pm / 11. 22(일) 5pm(시상식 및 폐막식)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주최**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문의	02-744-8066	**주관**	서울무용제 조직위원회
관람료	전석 20,000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YTN
관람연령	8세 이상	**협찬**	혼다코리아, 소중한건강증진센터 탐앤탐스커피
공연시간	70~90분		


[자유참가단체] 이준철 댄스랩


[자유참가단체] 노해진무용단

최고의 창작무용을 선발하는 축제

서울무용제는 관객들에게 더욱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고, 무용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의 범위 안에 참가 단체들 간의 경연이 이루어진다. 경연 부문은 자유참가단체부문과 경연대상부문으로 구분되며, 작품평가위원회는 참가 단체의 공연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자유참가단체 부문은 6단체 중 최우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는 차기 무용제의 경연에 참가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으며, 경연대상부문의 8개 참가단체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적인 경합을 통하여 대상, 우수상, 안무상, 연기상을 수상을 하게 된다.

모두가 어울려 즐기는 무용의 장

약 20일간 펼쳐지는 서울 무용제의 대장정은 11월 2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그 막을 내리며 뜨거운 무대를 펼쳐준 최고의 무용 작품에 대한 시상의 결과를 발표한다. 혼신을 다해 참가했던 자유참가부문 6개 단체와 경연대상부문 8개 단체는 긴장감 속에 결과를 맞이한다. 마지막 행사는 시상식과 폐막식이 어우러진 서울무용제의 마지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폐막식 축하공연을 통해 한칠 Soul발레단, 윤명화무용단, R.se Dance Company 등 작년 제35회 서울무용제 수상단체들의 하이라이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초청공연]

11월 3일 정혜진무용단, KIM SUN HEE Ballet Company, 김선정무용단
11월 5일 아지드현대무용단, 김화례발레노바, 서영무용단

[자유참가부문]

11월 7일 이준철 댄스랩(Dance Lap)(현대),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발레), 노해진무용단(한국)
11월 9일 마묵무용단(현대), Im dance project 10(현대), 조성민무용단(한국)

[경연대상부문]

11월 11~12일 신종철 JCDance(현대), SZ.ENT(한국/이경수)
11월 14~15일 최진수 S Ballet Group(발레), 김혜림 춤,미르mir댄스시어터(한국)
11월 17~18일 리얼발레그룹(발레/이범구), 김용복 얼몬무용단(한국)
11월 20~21일 김진미풍유무용단(한국), 한정미댄스프로젝트-점,선,면(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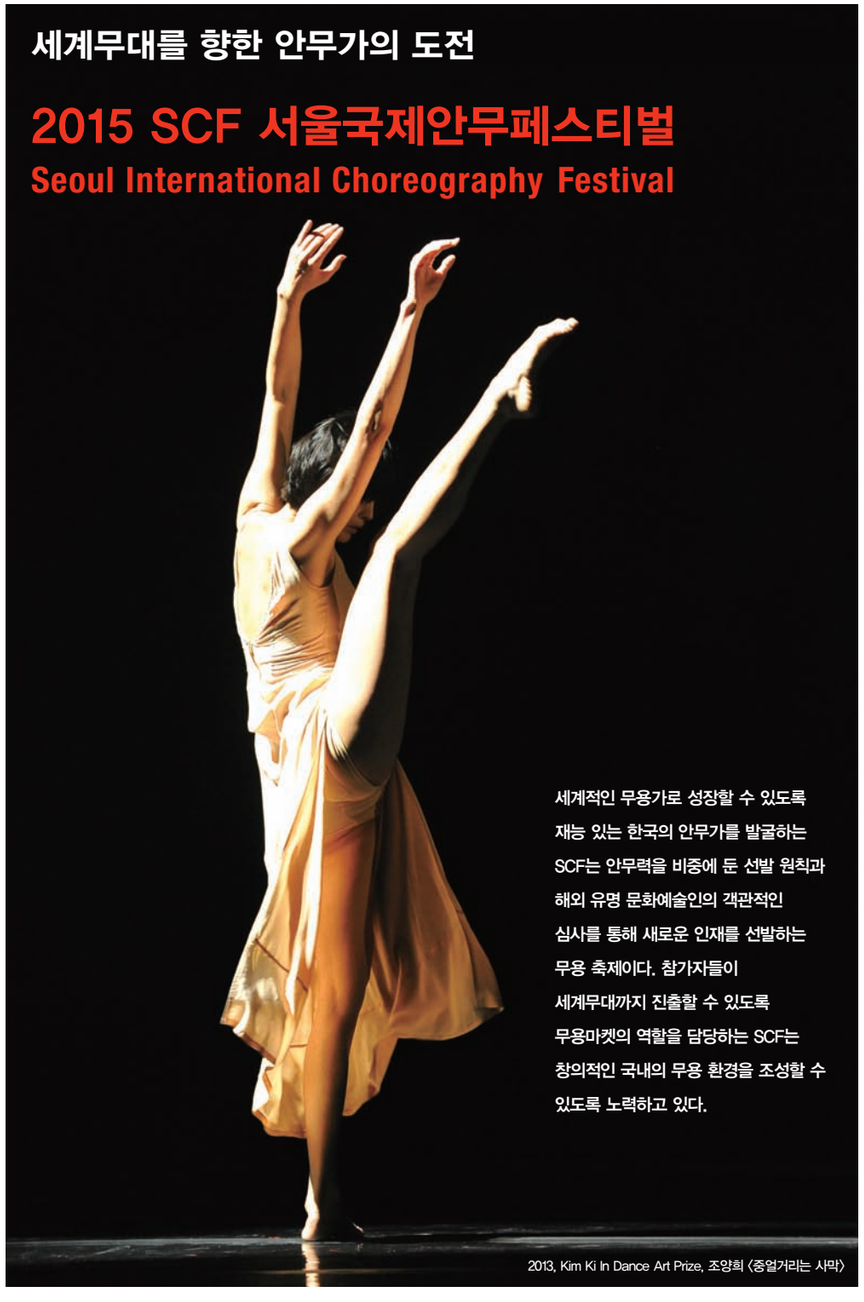
한국무용협회 Korea Dance Association

무용예술인의 권익신장과 무용계 발전 및 무용예술의 대중화를 위하여 1961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80개의 지방 지회 및 지부와 해외에도 네 개 지부를 설치하여 지역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무대를 향한 안무가의 도전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Seoul International Choreography Festival



세계적인 무용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한국의 안무가를 발굴하는
SCF는 안무력을 비중에 둔 선발 원칙과
해외 유명 문화예술인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는
무용 축제이다. 참가자들이
세계무대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무용마켓의 역할을 담당하는 SCF는
창의적인 국내의 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3, Kim Ki In Dance Art Prize, 조양희 〈중얼거리는 사막〉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5. 11. 25(수) 7pm / 11. 27(금) 7pm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24(화) 7pm / 11. 26(목) · 11. 28(토) 4pm, 7pm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325-5702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시간 80~150분

주최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주관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안무센터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실행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종합예술학교 (재)김기인춤문화재단 고베하우스, 천지항공, 춤판닷컴

창의적인 인재를 찾아서

한국현대무용진흥회(이사장 육완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SCF 서울국제 안무 페스티벌〉은 한국의 유능한 안무가를 발굴하여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2년에 시작한 〈바뇰레 국제 안무 페스티벌〉이 효시가 되었다. SCF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와 연령에 상관없이 컨템포러리 춤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안무가 중심의 창작 페스티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 속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대를 꿈꾸는 안무가들에게 도전과 비전이 되고 있다. 한국현대무용진흥회는 파격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창의적인 안무가들의 도전 정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고 보다 많은 안무가들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2013, Grand Prix, 김재승 〈자子〉



2013, SCF Award, 이화석 〈One hundred and eight〉

Program

2015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참가 작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일자	안무자 / 작품명
11월 25일(수) 오후 7시	박수정 / 지나가는 여인에게.. Norihito Ishii / AFTERGLOW 양희원 / Raise the Bar 이화석 / 다비 Nagashima Tatsuki / Bybye~Selling instinct buy control~ 김용철 / 흑살풀이 정형일 / 무게로부터의 자유 조재혁 / 현 一.
11월 27일(금) 오후 7시	김주헌 / One-ninth 1/9 전정환 / 혜경궁의 눈물 Kushida Yoshimitsu / Nightmare 김재승 / 나그네와 우거한자 Antoine Lee / Speak 금배섭 / 재생인간 김성용 / Moving Violence– The Episode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일자	안무자 / 작품명
11월 24일(화) 오후 7시	김요셉 / 곰뱅이 텄다 이경구 이연주 / 응답해요 휴스턴 장혜주 / Continuous 조현상 / 평범한 남자들 – The Ordinary MEN 정혜민 / Act% Hamada Junpei / DOMINO 허경미 / 쿰바카
11월 26일(목) 오후 4시	변상아 / ILLHYHL_ 길들여진 어느 야생동물 이야기 Kazuyo Hara / un face 이지희 / What do you want? 천종원 / vibe
11월 26일(목) 오후 7시	Tomomi Fujii / Face 김성현 / Black Box 도황주 / 그래서 그런겁니다. 권령은 / 나를 위한 기술 (The Skill for me) 최원준 / 붕어-崩禦
11월 28일(토) 오후 4시	주정현 / 나는 지금 톱니바퀴 마냥 굴러가고 있다 김성의 / 열정 -아모르파티 이정인 / Skins 최정식 / 나무가시 Yoko Koike / The Waters of September
11월 28일(토) 오후 7시	박연정 / 망구(望九) – 그믐달 이하나 류지나 / 정중한 호기심 Ayaha Matsuoka / Break 김봉수 김도연 / 편안한 어둠 (Quiet Darkness) Mana Senda / Document 임진호 이경구 지경민 / 낯가림 천샘 / 슬픔속으로



진짜 하이옌 찾기

베트남에서 시집 온 아내 하이옌은 어느 날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당국에 의해 격리수용 된다. 며칠 후 하이옌은 환자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나간다. 어느 거리에 버려진 아내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맨다. 한편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아내를 찾으려 하지만 외국인 신부라는 상황 때문에 사회에서 오히려 아내를 버린 나쁜 남편으로 오해를 받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남편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경찰의 도움을 얻어 내어 아내를 찾는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준 여자는 아내 하이옌이 아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고 남편에게 아내라고 강요하기 시작한다. 결국 남편은 경찰의 술수에 넘어가 다른 여자와 살게 된다.

순수한 사랑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가

그저 표류하는 인간군들의 삶이 있을 뿐이며, 고귀하고 절대적인 삶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의 희극적인 삶을 풍자하고 있다. 그 희극적 삶의 중심에 '영천'이 있다. 다른 인물들과 달리 그는 순수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하이옌'에 대한 사랑도 순수하다. 그러나 그의 순수함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고 만다. 결국 현실에 굴복하고 마는 그는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이 땅에 미만하고 있는 이기주의적 인간상,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이용하고 선동하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작금의 세태. 연극 하이옌은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진정으로 우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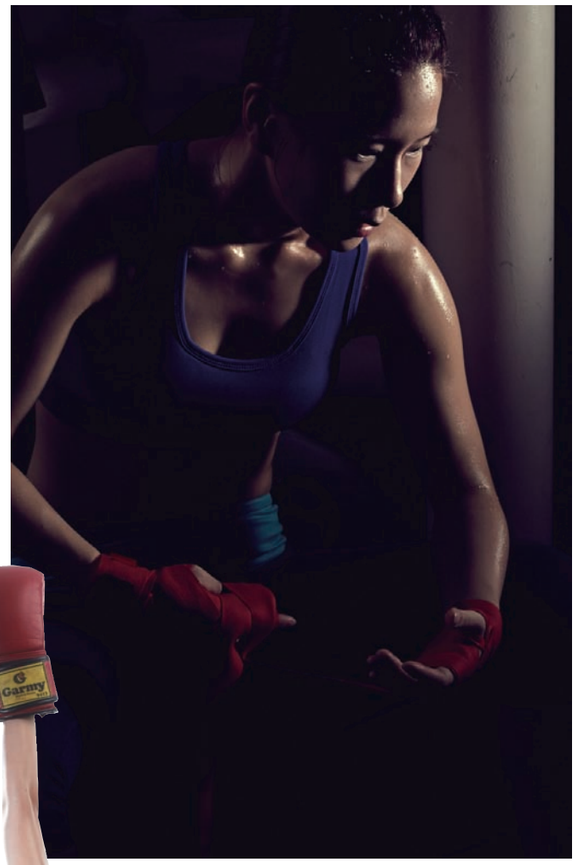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1. 27(금) ~ 12. 6(일)

평일 4pm, 8pm / 토요일 4pm, 7pm
일요일 4pm (11. 27(금) 4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10-9269-0408
관람료	전석 30,000원
관람연령	12세 이상
러닝타임	100분
기획	나봄컴퍼니
제작	극단 에이치프로젝트
주최	제35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주관	서울연극협회, 서울특별시
연출	한윤섭
출연	고인배, 도영희, 위명우 민준호, 전지혜, 권세봉 태준호, 김다희, 김서년 김인묵, 마정덕, 신영은, 원대섭

링 위에서 만나는 우리의 인생

파이터



2015년 링 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초연작
여배우들이 실제로 링 위에서 펼치는 멋진 경기

이루고 싶은 우리들의 꿈

링 위에 올라서면 누구나 혼자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철저하게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모두가 지키고 싶은 이와 이루고 싶은 꿈은 있는 법. 〈파이터〉는 여배우들이 링 위에서 복싱을 하며 그들이 지켜내고 싶은 꿈과 희망을 치열하도록 아름답게 그려낸다. 이들의 열정을 통해 꿈과 희망은 물론 용기 있는 도전과 가족의 사랑을 일깨워준다.

창작극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 실화극

〈파이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다. 그만큼 실제 결투 장면을 위해 출연 배우 모두 혹독한 복싱 트레이닝을 받았다. 링 위에서 전해지는 긴장감과 생동감을 연출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매일 시합장면을 연습하고, 여기에 탄탄한 실제 스토리를 더해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대학로예술극장 3관
2015. 10. 23(금) ~ 11. 29(일)

평일 8pm / 토 3pm, 6pm / 일 3pm (월~수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70-8836-6235
관람료	전석 30,000원
관람연령	만 12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제작	마루컴퍼니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출	이주용
출연	오일룡, 김대흥, 이경훈 지유, 차수린 외



시대를 앞서간 작곡가의 삶

19세기에 인정받지 못한 천재 작곡가 에릭사티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에릭사티〉는 미니멀한 사티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면서, 음악이 담고 있는 서정성을 기본으로 그의 도전을 보여준다. 미래에서 온 태한을 만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겪지만, 그것은 창작의 고통과 함께 기쁨을 선사한다. 의상에서는 초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컬러와 이미지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그림자놀이, 자이언트 퍼펫, 마임, 발레 등 자신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채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목해왔던 사티의 실험정신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917년 프랑스 파리 샤틀레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발레극 〈파라드〉를 오마주한 장면은 과거에 너무 일찍 태어난 에릭사티의 예술세계를 선명히 보여준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015. 11. 6(금) ~ 11. 8(일)

평일 8pm / 토 3pm, 7pm / 일 4pm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31-481-4025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안산문화재단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안산문화재단
제작	안산문화재단
연출	박혜선
대본	김민정
음악감독	신경미
안무	서미숙
무대	하성욱
출연	박호산, 김태한, 배해선, 한성식 신문성, 김용호, 김기창, 송형은 이형준, 임수빈







다시 찾는 삶의 의미

조씨고아

동양적 움직임, 상상력, 그리고 동양 정치학의 진수!
진정한 의(義)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21세기 무대에서 만나는 기군상의 〈조씨고아〉

극단 해를보는마음이 2014년에 이어 〈조씨고아〉를 다시 선보인다. 〈두드려라, 맥베스!〉를 통해 관객에게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와 감동이 〈조씨고아〉에서 극대화된다. 기군상의 〈조씨고아〉는 극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정의로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13세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변주를 통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2012년에 중국 CCTV에서 〈조씨고아〉라는 41부작 드라마를 방영, 2013년에는 〈천하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탄탄한 구조와 이야기 전개는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손색없는 작품이다.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무협극

〈조씨고아〉는 2014년 당시에도, 화려한 무협의 움직임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올해도 더 커진 무대와 화려한 움직임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처음과 끝에 꿈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했으며, 고아 스스로 극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여, 극의 마지막에 고아에 대한 연민을 극대화하고 사회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또한, 고아의 혼란과 극적 환상을 위한 영상과 음악 등을 선보여 한층 더 화려한 무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2015. 11. 13(금) ~ 11. 29(일)

평일 8pm / 토 3pm, 7pm / 일 4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764-7462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관람연령	만13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제작	극단 해를보는마음
원작	기군상
연출	황준형
기획	김지윤
예술감독	한명구
제작감독	장형욱, 김종식
조명디자인	김영빈
의상디자인	이현지
출연	조재욱, 신한울, 이기복, 한지혜 김지운, 주창환, 배아영, 한기헌 황석용, 전창근 외





소극장에서 즐기는 연극의 매력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 축제

대학로의 대표적인 소극장 축제

〈2015 D.FESTA 대학로 소극장 축제〉는 소극장 공연 활성화 및 국내 공연 교류의 장을 확장시키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소극장 공연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8년 간 개최되어 온 대학로의 대표적인 소극장 페스티벌이다.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우수 소극장 작품과 함께 영국, 일본,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우수초청공연, 미국과 한국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특별 초청공연 등 5개국 10작품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의 대학로를 다양한 색깔로 물들일 것이다.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2015. 11. 10(화) ~ 11. 22(일)
평일 8pm / 토 3pm, 7pm / 일 4pm (월요일 공연 없음)

아트원씨어터 3관
2015. 11. 11(수) ~ 11. 22(일)
평일 8pm / 토 7pm / 일 4pm (월요일 공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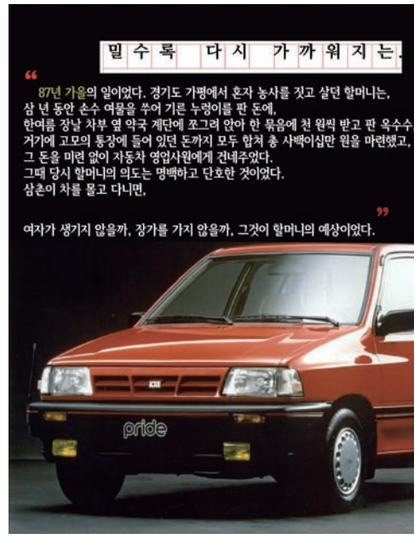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70-4912-9511
관람료 전석 30,000원

주최 (사)한국소극장협회
주관 대학로소극장축제 집행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국문화원 중국문화원

현대문학3부작 1부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문학의 연극화 프로젝트 첫 번째 작품
기발한 이야기꾼 이기호의 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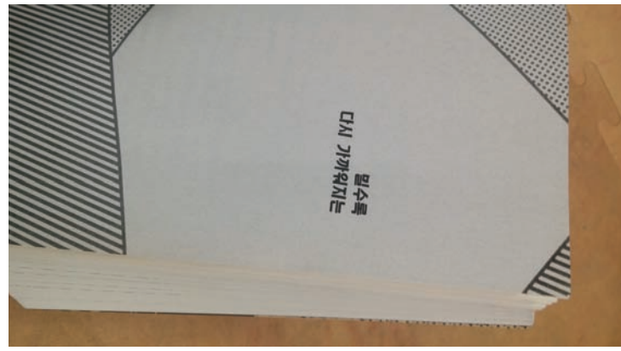


문학과 연극의 기분 좋은 만남

명품극단은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 체홉 등 세계 고전과 이효석, 김유정, 이문구와 같은 한국 문학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화하며 소설의 연극화, 문학과 연극의 만남을 연구해왔다. 이에 이어 명품극단 소속 차세대 연출가 서은정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 문학의 연극화에 도전하고자 한다. 연극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은 탁월한 이야기의 힘을 바탕으로 삶과 시대를 바라보는 서정적 시선, 기발한 연극적 상상력과 실험 정신을 무대화하여 관객과 문학, 연극의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결성하고자 한다.

이야기꾼 이기호 작가의 작품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의 원작 소설가 이기호는 199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김박사는 누구인가?〉,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 〈차남들의 세계사〉를 펴낸 바 있다. 연극의 원작 〈밀수록 다시 가까워지는〉은 11회 이효석문학상 수상작으로,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과 문장, '이야기하기'에 충실한 작품으로 이야기와 여백을 증폭시키는 '이기호식 미학'이라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명품극단 차세대 연출가 서은정은 밀도 높은 이야기와 배우의 에너지를 무대에서 결합하고, 시대에 대한 성숙한 시선과 신선한 연극적 상상력을 선보이고자 한다.





동숭아트센터 동숭소극장
2015. 11. 26(목) ~ 12. 6(일)

평일 8pm / 토 3pm, 7pm / 일 4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3673-2003
관람료 전석 25,000원
관람연령 14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제작 명품극단
원작 이기호
연출 서은정
기획 장지연
출연 채희재, 김동훈, 고윤미, 김형중, 양진영



내 안에 불 꺼주세요

〈육쌍둥이〉는 2009년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 망루에서 타올랐던 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그때 타올랐던 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2015년 현재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고 확신하고 가상화한 연극이다. 연극을 통해 인간의 탐욕을 불로 상징화하여 도시에 버려진 여섯 쌍둥이에게 어떻게 불이 옮겨 붙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태워버리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살리는 뜨거운 불로 뒤집히는지를, 연극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상상으로 생생히 보여주고자 한다.



돌아온 육쌍둥이와 이들의 이야기

2015년 서울. 빌딩 망루에서 불이 타오른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꺼지지 않던 그 불은 고물을 줍는 사내에게 옮겨 붙는다. 며칠 후 고물상 사내는 몸이 붉게 달아오른 채 죽는다. 그러자 고물상 사내의 자식, 10년 전에 가출했던 육쌍둥이가 오랜 만에 고물상을 찾는다. 그곳에선 가출하지 않은 막내와 엄마가 육쌍둥이를 기다리고 있다. 막내는 머리가 붉게 달아올라 있다. 연극은 여기부터 시작한다.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2015. 11. 19(목) ~ 12. 6(일)

평일 8pm / 토 3pm / 일 4pm
(매주 월요일, 11. 27, 11. 28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70-8719-0737
관람료	전석 20,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연출	하수민
무대미술	남경식
의상	홍문기
음악	이호근
안무	이윤정
출연	강애심, 김현, 이주영 이진경, 권일, 임영준, 박상훈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찾아온 사랑

만추

한국영화의 대표 멜로드라마 〈만추〉의 연극화
가을날의 짧은 며칠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랑 이야기



〈만추〉의 일곱 번 째 리메이크

수인번호 2537번, 애나는 수감된 지 7년만에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3일 간의 휴가를 받고, 시애틀 행 버스에 오른다. 그 때, 막 떠나려는 버스를 잡아 올라탄 훈. 사랑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애나는 처음 보는 남자 훈과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다. 하지만, 애나에게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영화 〈만추(1966)〉의 원작자이자 한국영화사에서 천재라 불린 이만희 감독의 타계 40주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영화 〈만추〉의 시나리오를 집필한 김지헌 작가가 타계한 해이다. 감동적인 작품을 완성한 두 고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기리는 해이기에 〈만추〉를 연극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작업은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다.

연극으로 만나는 〈만추〉

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완성된 연극 〈만추〉는 마음을 여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잠깐의 만남 동안, 최소한의 대화로 사랑을 찾게 되고, 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가을 같이 쓸쓸하지만 결코 우울하지만은 않은, 희망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작품 자체에는 많은 대사가 오고가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각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표현과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음악, 시공간을 표현해줄 무대와 조명 등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아트원씨어터 1관
2015. 10. 10(토) ~ 11. 8(일)

평일 8pm/ 토 3pm, 7pm / 일요일 및 공휴일 2pm, 6pm
(매주 월요일, 11. 8 6pm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588-7708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공연시간	105분

제작	HJ컬처(주)
프로듀서	한승원, 김종석
원작	김지헌, 김태용
각색	장우성
연출	박소영
출연	이명행, 박송권, 김소진 김지현, 고훈정, 이민아, 김정겸 외

아트원씨어터 1관

2015. 11. 17(화) ~ 12. 6(일)
평일 11am / 토 3pm, 6pm / 일 4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336-3767
관람료 R석 45,000원 S석 35,000원
관람연령 만 12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제작 뮤지컬창작터하늘에
원작 이근미
대본 정재헌
연출 전창훈
협력연출 조영환
출연 정아헤, 홍지원, 정재헌, 문민형, 정승조, 설재근, 이은아, 가람이, 이은헤, 신나라

뮤지컬창작터하늘에

17세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 그리고 사랑
당신의 아름다웠던 열일곱 살의 이야기

다시 찾는 가족의 가치

청소년 베스트셀러 소설 〈17세〉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으로 누구나 겪는 17세의 꿈과 사랑이 담겨있어 모든 연령층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다. 세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로 삶에 찌든 현대인의 시선을 '가족'으로 돌려서 훼손되고 변질된 가족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공연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와 군무로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공연이 될 것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혼으로 깨진 가족들이 많아지면 그로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랑과 책임감을 잃은 부모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이들 역시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연극 〈17세〉는 이 시대의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 한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아트원씨어터 2관

2015. 10. 23(금) ~ 11. 15(일)
평일 8pm / 토 3:30pm, 7pm / 일 2:30pm, 6pm
(월요일, 11. 15 6pm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3672-8848
관람료 R석 44,000원 S석 33,000원
관람연령 13세 이상
공연시간 100분

연출 안현규
작가 이예인
작곡 류찬
음악감독 이정현
무대/영상 조수현
분장 장혜진
조명디자인 이현규
의상디자인 문혜민

H&H

라이어타임

2018년 거짓말이 금지된 사회
믿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코믹한 풍자

라이어타임 속에 사는 2018년의 한국

수많은 범죄와 거짓말, 루머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대통령 '차대호'는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특정 시간만 거짓말을 허용하는 일명 '라이어타임' 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한 라이어타임은 오후 7시부터 9시. 그 외의 시간에는 모든 거짓말이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거짓말을 통제하는 라이어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거짓말을 할 경우 센서가 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자가 쉽게 가려지니 범죄율이 하락하고 사람들은 라이어타임 덕분에 사회가 안정되었다며 라이어타임을 만든 안박사와 차대호를 칭송한다. 그러나 평소에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사이에 의도치 않은 갈등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줄여갔고 사회는 조용진다. 사람들은 오로지 라이어타임에만 참았던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수다를 떨게 된다.

거짓말이 금지된 사회를 통해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

창작뮤지컬 〈라이어타임〉은 '거짓말이 금지된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이어타임〉은 '거짓말의 옳고 그름'에 대한 단순한 접근이 아닌 '믿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코믹과 풍자를 섞고, 유쾌하고 통쾌한 분위기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SNS의 발전으로 수많은 말들이 진위의 여부없이 퍼져나가는 세상. 라이어타임은 그런 현재를 그리는 이야기이다. 통제를 강요하는 사람, 통제에 저항하는 사람, 통제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리고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 사회를 통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아트원씨어터 2관

2015. 11. 24(화) ~ 12. 31(목)
평일 8am / 토 4pm, 7pm / 일 3pm, 6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2-766-7667
관람료	R석 55,000원 S석 44,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제작	심포니나인
연출	성재준
음악감독	박성일
안무	정도영
출연	정민, 황의정, 주민진, 백기범, 이설, 손지애, 하현지, 김동현, 김민건, 김지민, 김용남

㈜심포니나인

지구멸망 30일 전

지구가 멸망하니, 모두들 결혼을 해라?!
독특한 발상의 세기말 판타지 뮤지컬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진심

뮤지컬 〈지구멸망 30일 전〉은 지구 최후의 순간을 통해 사랑보다는 조건이 앞서가는 현대 사회의 결혼 풍속을 꼬집고 사랑 본연의 가치를 보여주는 세기말 판타지 뮤지컬이다. 가까운 미래, 사랑보다는 환경적 조건이 결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 지구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사랑 본연의 가치를 찾기 시작한다. 기존의 창작 뮤지컬에서 보여주지 못한 독창적인 설정은 신선한 재미와 함께 사랑과 결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뮤지컬계의 히트메이커와 드라마 〈미생〉 작곡가의 만남

뮤지컬 〈지구멸망 30일 전〉은 뮤지컬 〈싱글즈〉, 〈풀하우스〉, 연극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의 흥행작들을 만들어 낸 히트메이커 성재준 연출의 신작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흥행이 보증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이번 공연에는 드라마 〈미생〉의 작곡가인 박성일 작곡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생〉의 OST는 박성일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감정과 포근한 멜로디로 드라마의 인기만큼이나 OST 또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뮤지컬 〈지구멸망 30일 전〉의 전 곡을 직접 작곡한 만큼 음악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아트원씨어터 3관

2015. 10. 23(금) ~ 11. 8(일)
평일 8pm / 토 3pm, 7pm / 일 3pm
(월요일 공연 없음)

예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www.koreapac.kr 02-3668-0007
문의	010-9204-9002
관람료	전석 30,000원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공연시간	90분
주최	극단 유목민
연출	손정우
극본	김윤미
예술감독	심재민
기획	박소담, 김세중
출연	정슬기, 오민애, 전형재, 김나윤, 김승환, 김결, 김봄, 홍은정, 김혜민, 이승현, 이다해, 에젠바트

극단 유목민

안녕, 앙코르

여행지에서 만난 동시대의 불안과 아픔
한국인의 영혼을 매만지는 치유의 연극

앙코르와트에서 만난 상처받은 사람들

에드워드 박의 가족은 아들이 죽기 전 여행했던 캄보디아에서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사진을 찍는다. 15년 동안 갚아야할 부채와 부양할 가족을 떠넘기고 사라진 형과 자신의 흔들린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오선우, 1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왔던 여행지를 다시 찾은 이미연, 킬링필드 해골탑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배사장과 시부모 병수발로 뒤늦게 사진 찍는 꿈을 발견한 소심희, 남한의 노총각 가이드 서정남과 북한 식당 처녀 정영미의 이룰 수 없는 사랑까지. 각자의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 수밖에 없던 주인공들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함께 여행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매만지고 해소한다.

캄보디아를 통해 공감하는 한국 역사의 아픔

〈안녕, 앙코르〉는 한국인의 정신적 여정을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을 찾아가 여행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단순히 캄보디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지 않으며 캄보디아의 오랜 식민지 생활과, 내전, 독재의 그늘 아래서 이제 겨우 벗어난 캄보디아의 아픔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시도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 안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캄보디아에서 남한의 관광객과 북한식당의 관계를 통해 앞으로 통일된 후 한국의 초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re-

순수한 예술혼을 불태우며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던 제1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고, 젊은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꿈과 영감을 심어줬을 이번 SPAF는 국내외 다양한 작품이 함께 만들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1월의 리뷰에는 아직 식지 않은 SPAF의 열기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SPAF의 주요 연극과 무용 공연을 아우른 리뷰를 읽으며 10월의 뜨거웠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1


〈벗어난 원리들 ver.2 – 우는 사람들〉

안개가 자욱하다, 연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연극 분야 국내 공식참가작

연극과 세상의 관습에 저항했던 독일 연극인 클라우스 파이만은 올해 스파프 초청인사로 관객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시대를 '안개'에 비유했다. 과거에는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공감한다. 우리 모두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세상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 자욱한 안개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상이 표류할 때 누군가는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하다못해 눈을 부릅뜨고 안개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글 김명화(연극평론가) 사진 옥상훈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


〈상주국수집〉

비록 외국 초청작의 후광에 가려졌지만 올해 스파프 연극분야 국내 참가작은 비교적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참가작은 초연작인 상상만발극장의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10/2–5,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재공연 된 무브먼트당당의 〈벗어난 원리들 ver.2 – 우는 사람들(10/3–5,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극단 서울공장의 〈햄릿_아바따(10/8–11,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극단 동의 〈상주국수집(10/9–13,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모두 4편이다. 이들 작품은 문화상호주의나 설치(Installation) 퍼포먼스처럼 연극성이 화려한 작품부터 시각적 연극성을 최소화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싱싱한 레퍼토리였다. 무엇보다 존재의 어둠과 재난의 시대에 직면하는 용기를 갖추었고, 공간과 배우의 신체를 통해 이를 연극적 형식으로 빚어냈다.


〈햄릿_아바따〉



〈벗어난 원리들 ver.2 – 우는 사람들〉
무브먼트 당당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0. 3(토) ~ 10. 5(월)

대극장 무대에 구축된 화려한 연극성:
〈벗어난 원리들 ver.2 – 우는 사람들〉과 〈햄릿_아바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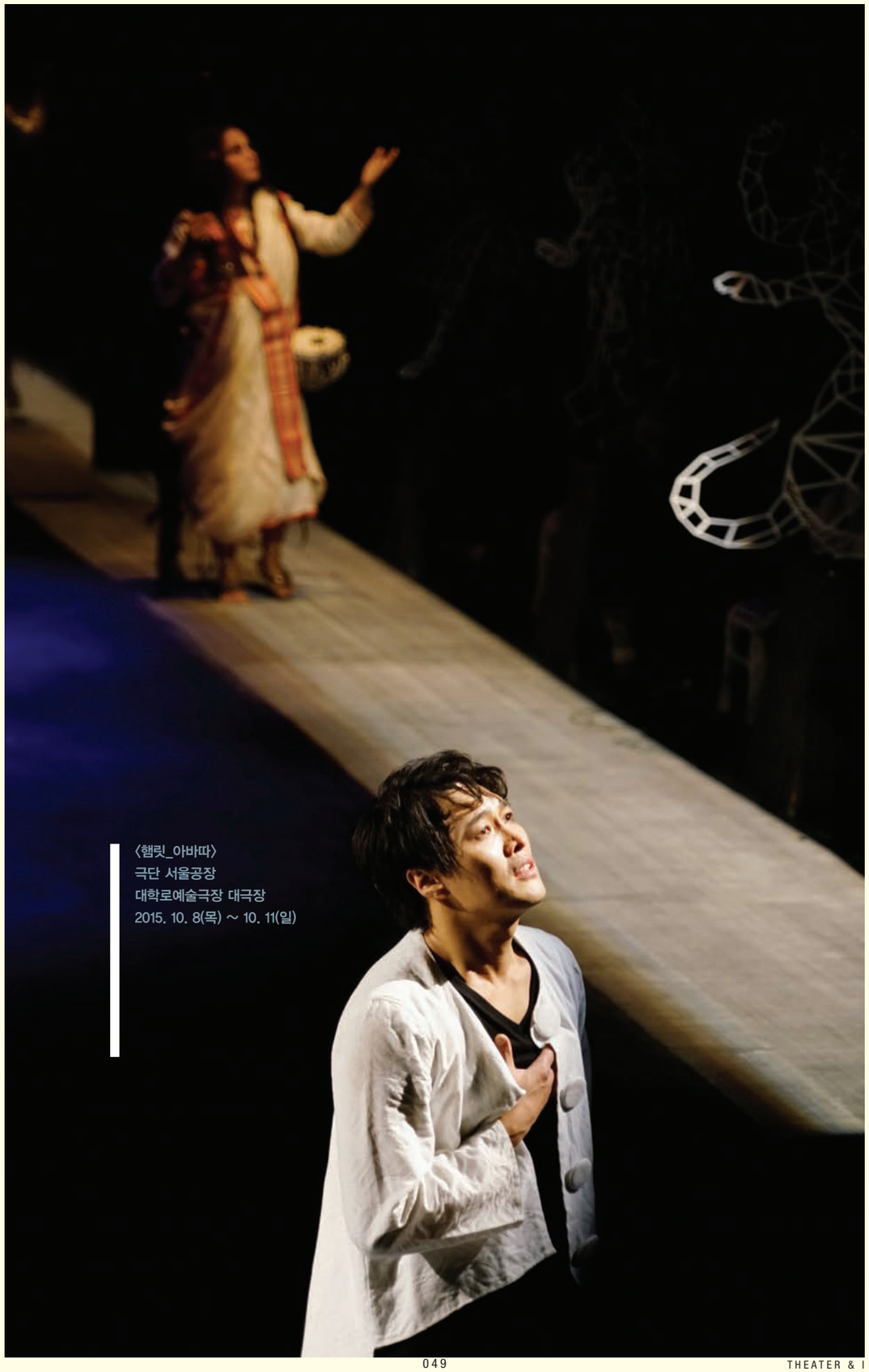
김민정과 무브먼트당당은 최근에 극장을 전시장처럼 전환하며 연극의 관습에 도전하고 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극장 전체를 전시장처럼 만들었던 최근작 〈불행〉도 그렇고, 이번에 극장으로 들어온 〈벗어난 원리들 ver.2 – 우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 3층의 비계를 세워 12개의 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었다. 벌통처럼 붙어있는 좁은 방들은 고시원이나 벌집을 연상시켰다. 게다가 방 안의 광경은 모두 자살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미학적 공간은 궤도에서 벗어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할 것이다.

작품은 사례연구를 통해 죽음 직전의 자살자들의 한 시간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싸우고 먹고 장난치거나 섹스하면서, 혹은 홀로 집을 치우고 망연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거나 빨래를 개키는 방식으로 열 두 개의 죽음의 방이 연출되었다. 동시다발성으로 인해 무대의 전체 풍경은 화려하다는 인상도 주었지만, 궤도에서 벗어난 폐허의 화려함이라 처연하기도 했다. 그걸 각인시키듯 공연 내내 주파수가 어긋난 기계적 소음이 극장을 맴돌며 관극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분장실을 통해 무대로 등장해서 현장 감식을 하듯 무대 위의 방들을 관찰한 뒤, 객석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았다. 무대에서 전달되는 동시다발적 기호로 인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볼 것인지는 관객의 몫이고 그 정보를 나열하여 서사를 완성하는 것도 관객의 몫이다. 그러니 공연을 만든 것은 무브먼트당당이지만, 결국 공연을 완성하는 주체는 관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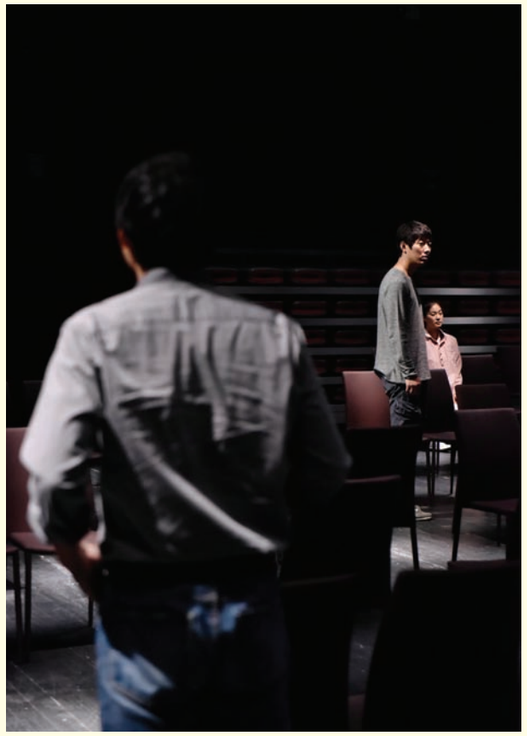
또 한 편의 대극장 공연은 임형택이 연출한 서울공장의 〈햄릿_아바따〉다. 우리에게 아바따는 컴퓨터 게임용어로 익숙하지만 원래는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인도 말이 어원으로, 이 작품은 인도 연희자와 함께 〈햄릿〉을 만든 문화 상호주의 계열의 작품이다. 연출가 임형택은 오랫동안 제의성과 유희성에 토대를 둔 연극적 연극을 지향해 왔다. 이번 공연에서도 햄릿과 오필리아를 연극하는 젊은이로 설정하고 극중극의 광대장면을 부각하면서 부패한 세상을 광대의 에너지, 유희성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반면 인도의 두 연희자는 죽은 부왕과 오필리아의 죽은 영혼으로 출연하였는데, 아스따드 데부의 집중력 있는 몸짓이나 파르바띠 바울의 명상에 찬 움직임과 소리는 작품에 근원적인 제의성을 부여해주었다.

무대는 양 옆에 도열한 아바타 상들과 밀레의 그림을 연상시키듯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오필리아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한 앞 무대의 작은 연못을 제외하곤 빈 무대였지만, 제의와 유희를 넘나드는 에너지로 충만했다. 그러나 때론 난장에 가까울 정도의 과잉 에너지와 유희성이 정갈한 제의성과 충돌한다는 인상도 받았다. 사실 이 작품만이 아니라 '과잉'은 임형택 연극의 오랜 숙제다. 그 피터팬같은 무구한 유희성과 과도한 에너지를 넘어서 절제의 미학으로 진입할 것인지 혹은 자신만의 고유한 연극 미학을 확립할 것인지, 그의 다음 단계를 기대한다.



〈햄릿_아바따〉
극단 서울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2015. 10. 8(목) ~ 10. 11(일)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
상상만발극장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5. 10. 2(금) ~ 10. 5(월)

집중하라, 연극은 오락거리가 아니다: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과 〈상주국수집〉

반면 소극장에서는 연극적 장식과 볼거리를 최소화하고 본질과 씨름한 작품들이 공연되었다. 특히 박해성이 쓰고 연출한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은 관객들이 마주 보고 앉은 의자들 사이를 오고가는 배우와 텍스트만으로 한 편의 연극을 기세 좋게 밀어붙였다. 실존 과학자의 강연까지 가미된 작품의 내용은 과학에 대한 현대인의 믿음을 문제 삼았고 칸트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횡단하고 거대한 재해와 불행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과연 믿을만한 것인지 묻는다. 집중력이 약한 관객들이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은 세계를 지탱해온 토대를 문제 삼았고 끈덕지게 사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공연을 보는 동안 뇌세포가 팽팽하게 곤두설 정도였다. 우리는 쓰나미와 방사능이 휩쓸고 지나간 후쿠시마를 경험했다. 과학은 예측하고 진단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기 익숙한 믿음을 의심해야 한다면 작품의 형식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기원 2: 후쿠시마의 바람〉는 도로로 비유하자면 신호등이나 표시판이 붙어있지 않은, 불친절하고 텅 빈 카오스였다. 극적 공간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심지어 그들이 누구와 말하고 있으며 살아있기는 한 것인지, 아무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그저 귀를 쫑긋 세우고 파편적인 대사와 강연을 들으며 주제를 짐작했고, 인물들을 파악해 나갔다. 자본의 구조 속에 소모되는 비정규직 인생,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다 임신이 불가능해진 시민운동가의 성마른 분노, 과학의 힘을 확신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과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과학자 등등.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단서를 추적하면서 그들의 실체에 다가갔다고 느낀 순간, 후쿠시마를 연상시키는 굉음 소리와 암전으로 연극은 종결되었다.



그 순간의 착찹함을 뭐라고 말해야 하나. 간신히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다. 길고 긴 굉음을 어둠 속에서 들으면서 그 때 나는 후쿠시마를, 내 옆의 빈자리가 그 때 죽은 존재들의 자리였으며 어쩌면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이미 죽은 존재라는 연대감에 깊은 전율을 느꼈다. 아무런 연극적 장식도 사용하지 않은 연극이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가능하게 한 것이다.

〈상주국수집〉은 이번 축제 참가작으로 재공연되면서 훌륭하게 환골탈태했다. 작품은 상주의 한 국수집에서, 죽음을 앞둔 노모와 탈영병으로 자살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이 국수가 만들어지고 건조되는 배경 속에 펼쳐진다. 이미 초연 당시에도 이 작품은 훈련된 배우들의 섬세한 신체 연기와 밀도로 호평을 받았었다. 그러나 과도한 양식화와 긴장이 '상주'라는 지역색을 배경으로 삼은 이 작품에 적절한 것인지, 한국적 숨쉬기와 연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다.

연출을 맡은 강량원은 이번 공연에서 극적 설정이나 스토리는 전혀 바꾸지 않았다. 대신 작품을 관통하던 과도한 양식화나 인위적 숨쉬기를 편안한 한국적 숨쉬기로 끈기있게 변모시켰다. 인물들의 두런거리는 대사들이 늘어났지만 그 말들은 신체적 연기와 길항하지 않았고, 길고 긴 국수가락처럼 국수집을 감도는 오래된 무력함과 슬픔을 빚어내는데 일조했다. 특히 사랑하는 남자와 도망치고 싶은 욕망과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으로 고뇌하는 딸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일상에서의 무뚝뚝함과 홀로 있을 때의 흔들리는 신체의 균열이 여운을 남겼고 문득 들리는 풀벌레 소리나 전등불빛 하나 등 소소한 시청각적 변화도 극적 풍경과 절묘하게 어울리면서 시적 울림을 만들어냈다.

연극을 보고 극장 밖을 빠져나간 뒤, 나는 그 밀도 있는 슬픔에 젖어 금방 귀가하지 못하고 한참동안 밤길을 걸어 다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상주국수집〉
극단 동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5. 10. 9(금) ~ 10. 13(화)

2

2015 SPAF를 빛낸 세계적인 무용 단체

피핑 톰 &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는 2000년 출범한 이래로 서유럽 컨템포러리댄스라는 새로운 무용조류를 적극 소개함으로써 한국 컨템포러리댄스의 빠른 성장에 적지 않게 기여해왔다. 그동안은 1980년대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같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간 컨템포러리댄스를 집약해서 소개했다고 한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바로 지금의 따끈따끈한 컨템포러리댄스를 선보이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올해 SPAF 무용부문 상반기 작품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단체로는 개막식을 장식한 피핑 톰과 두 개의 작품을 들고 온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를 꼽을 수 있다.

글 심정민(무용평론가 · 비평사학자) 사진 옥상훈


〈아 루에〉


〈사키난〉





집착과 상실의 논제에 대한 실제화 〈아 루에〉

2004년과 2006년, 2013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내한한 피핑 톰 무용단은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아 루에(A Louer)〉를 10월 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 올렸다. 가브리엘라 카리조와 프랭크 샤르티에는 각각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출신으로 세드라베 무용단에서 만나 의기투합하여 2000년에 자신들만의 단체 피핑 톰을 만들었다. 활동 초기부터 무용과 음악, 연극을 교차하여 인간의 조건과 삶의 비극성을 예리한 시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찬사를 받아왔다. 피핑 톰은 현재 로사스 무용단, 울티마 베즈, 세드라베 무용단, 니드 컴퍼니와 함께 벨기에 컨템포러리댄스를 이끄는 단체로 일컬어진다.

피핑 톰은 우리의 현실과 멀지 않은 듯하면서도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세계를 무대 위에 구현해 놓곤 하였다. 현실을 닮았지만 실제와는 다른 이질적인 꿈의 세계를 연상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데이비드 린치나 코엔 형제의 컬트무비에서 느낄 수 있는 기이함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이는 현실에 있는 기재들을 가져와서는 다르게 배치시키고 활용함으로써 기이한 환영과도 같은 이미지와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무대 전체를 덮고 있는 붉은 커튼이 걷히자 의자와 소파, 전등, 피아노, 그림, 계단, 유리문 등으로 장식된 낡은 저택 풍의 무대가 드러난다. 한 때 메조소프라노로 유명했던 유리디케 드 벨은 모든 영광을 잃은 현실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녀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은 그 상처에서 초연하려다가도 다음 순간 분노를 표한다. 한 무리의 군중은 불쑥 튀어나와 유리디케를 쫓아다니면서 박수를 치고 존경을 표하고 아첨까지 한다. 집사는 어느 샌가 나타나서 무대를 가로지르고는 바람처럼 사라진다. 이 모든 캐릭터들은 변질된 기억, 잠재된 욕구, 우울한 현실, 고독한 영혼 등을 반영하고 또 대변한다.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놓은 캐릭터는 집사로, 그 역을 맡은 김설진(왼쪽 사진에서 접시 들고 있는 남자)은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걸친 채 이리저리 날렵하게 뛰어다닌다. 믿을 수 없을 정로로 빠르고 유연하게 흐느적거리는 다리와 발은 마치 골격 자체가 없는 듯하다. 인간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의 움직임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고무인간이나 유령을 떠올리게 한다. 김설진은 이후 정훈목과 짝을 이루어 돌고 도는 패턴을 이어간다. 이를테면 왼쪽에서 나타나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사라져버리는가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출발점에 정훈목이 나타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모습과 몸짓이 닮아있다는 점에서 착시마저 일으킨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물고 물리면서 순환하는 초현실적인 시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이다.

전작 〈반덴브란덴가 32번지〉에서 보여주었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육신들'에 비해 강렬하거나 명료하지는 못하다는 〈아 루에〉의 첫 느낌은 그러나 곱씹을수록 이와 다른 진가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꿈이나 환영이란 것이 깨어난 순간 뚜렷함을 잃은 채 희미하고 왜곡된 잔상만을 남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렬하거나 명료하게 묘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루에〉가 주는 뚜렷한 진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 덧없이 사라진다'는 우리의 관념과도 닿아 있는 집착과 상실의 논제에 대한 실제화를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경이롭게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컨템포러리댄스는 모든 관객에게 비슷한 인상을 심어놓기 보다 각 관객의 경험과 취미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상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아 루에〉가 어떤 이에게는 숨겨진 마음을 반영하는 꿈이나 환영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기분 나쁘고 혼란스러운 악몽일 수 있듯 말이다.



〈아 루에〉
피핑 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5. 10. 2(금) ~ 10. 3(토)



〈사키난〉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0. 12(월) ~ 10. 13(화)



우울과 해방 그리고 절제와 혼재 〈사키난〉

프랑스 컨템포러리댄스의 창작산실로 일컬어지는 몽펠리에 국립안무센터는 얼마 전에 크리스티앙 리조를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맞이하였다. 그로서는 프랑스 더 나아가 전 세계 컨템포러리댄스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발맞춰 SPAF 2015에서도 크리스티앙 리조의 작품을 두 개나 불러들였는데, 대표작으로 기대를 모은 〈실화에 따르면〉에 앞서 〈사키난〉이란 남성 독무가 10월 12~13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을 장식하였다.

크리스티앙 리조의 〈사키난〉은 터키어로 '당신이 눈을 보호하면 할수록 더욱 다칠 것이다'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보호하려고 애쓸수록 도리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현실에 맞닥뜨려진 삶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의 해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찾아가고 열어갈 것인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체크셔츠, 청바지, 워커, 비니, 배낭을 걸친 채 상자 위에 앉자 먼 곳을 응시하는 한 남자는 그 자체로 고독과 방랑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한 시간이나 독무를 책임진 케렘 켈러벡은 터키에서 태어났으나 춤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이주한 무용가이자 배우다. 그의 독특한 배경이 이방인이자 자유인으로서의 중첩적인 느낌을 제대로 살리는 근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크리스티앙 리조의 선택은 현명했다. 화려하고 기교적인 춤동작보다는 몸의 무게중심을 느끼면서 반동과 진행을 거듭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써 작품의 차분한 밀도를 높인 점도 고무적이다.

〈사키난〉은 춤을 중심에 놓고 있지만 그것에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음악, 무대미술, 조명, 의상 등 무대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함축된 의미를 분산시켜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무대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퍼즐처럼 짜 맞춰져 하나의 함의를 완성해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크리스티앙 리조가 록밴드와 사운드트랙, 패션디자인, 시각예술, 전시기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리라 본다.

덩그러니 놓인 상자 모양의 오브제는 차츰 분리되어 널빤지나 책상으로 바뀐다. 오브제에서 꺼내진 의자, 화분, 책들 역시 이리저리 너부러지고 뒤집혀진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원래대로 고정되지 않고 다르게 재구성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무대의 시각적인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인상이다. 이는 대칭이나 대각선처럼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균형감이 아니다. 보다 예술적인 밸런스를 추구하는데, 무대를 3차원의 화폭이라고 볼 때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정(正)위치와 뒤집혀짐, 큰 오브제와 잡다한 소품들이 전체로서 균형성 있게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단순하지만 예리하고 세련된 선을 그려내는 조명이라든가, 리드미컬한 퍼커션과 예리한 불협화음을 뒤섞은 음악까지 어우러져 〈사키난〉이란 작품의 형상을 완성한다.

이렇듯 춤과 함께 음악, 무대미술, 의상, 조명 같은 구성 요소들 간에 절제와 혼재의 섬세한 줄타기는 〈사키난〉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동력이다. 거기서 관객은 우울과 해방 사이에 어딘가를 유영하게 되며 그 출구는 자기 안에서 찾아내고 열어가야만 한다. 언뜻 보기에 차분하고 담백하게 전개되면서도 이면에 함축된 의미는 대단히 묵직하고 미묘한데 그 간극마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Caption:

두 개의 언어, 하나 된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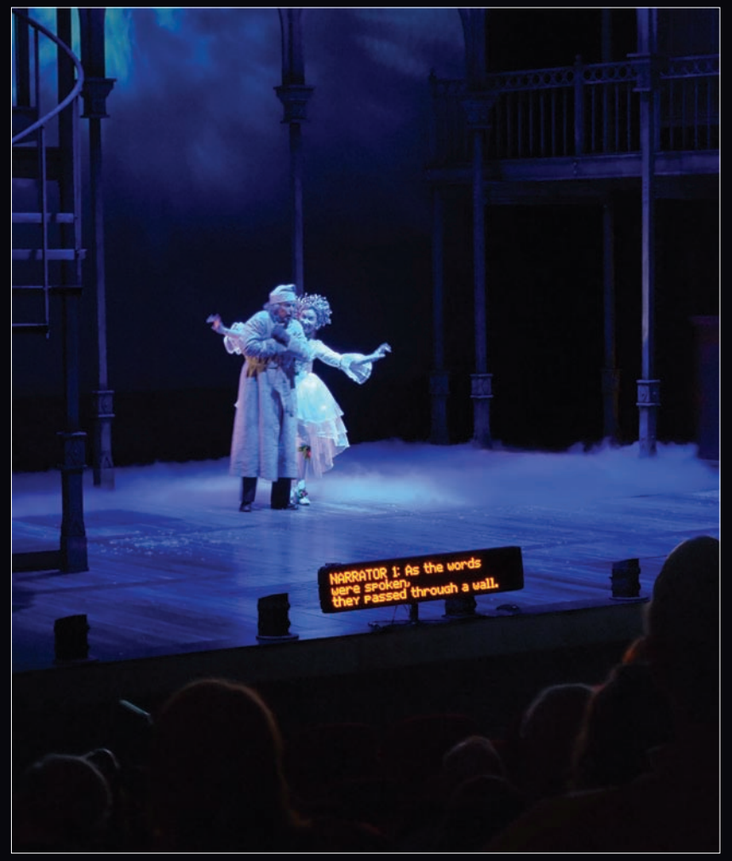
글 최성우

좋은 예술 작품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모두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글로벌 시대, 공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유명 공연들이 우리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우리의 훌륭한 작품들이 해외 무대에 선을 보이기도 하지요. 다만, 공연과 관객 사이에 '언어'라는 장벽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연의 내용을 다른 언어권의 관객에게 무리 없이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자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작의 언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현장에서 공연 진행에 맞추어 띄우는 식입니다. 한편, 자막 대신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북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마련한 텍스트를 공연 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막을 보는 행위가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거나, 자막 없이도 내용의 전달이 가능한 공연일 때 그렇습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인 베를린 앙상블의 〈셰익스피어 소네트〉의 경우에는 자막과 함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지 그로토프스키-토마스 리차드 워크센터의 〈리빙룸〉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극의 내용이 공연 전 관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권의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일은, 이처럼 해당 공연의 성격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좋은 자막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많은 극단과 극장들이 고심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원작의 의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직역과 의역을 유연하게 섞어 작품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고전'의 경우에는 원문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근작의 경우에는 의역으로 요즘 관객들의 공감을 유도합니다. '자막 전문가'라는 전문 영역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최근에는 캐릭터와 분위기에 따라 서체와 글씨의 크기까지 바꾸기도 하고, 자막이 넘어가는 속도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좌석에 부착하는 개인 자막 화면까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막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의 연출가 아리안 므누슈킨(Ariane Mnouchkine)은 "자막은 아름다움의 일부이며, 자막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창출되고 읽기라는 새로운 시각적 요소도 제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권의 정서와 문화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자막. 엄연한 공연 문화의 일부라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듯합니다. 그렇다면 관객들 또한 조금의 불편함 대신, 특별한 즐거움으로 자막과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요. 공연을 즐기는 방법이 더욱 풍성해진 셈이니까요.





공연 무대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위치한 자막 스크린 모습

©clarencebrowntheatre.com

공연티켓 1+1

"엄마, 주말엔 공연 보자!"



공연티켓 2장을 구매하면 그중 1장은 무료

-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전통예술, 콘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1명이 공연별로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4장 구매 시 그중 2장 무료)
- 티켓은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공연장에서 본인 확인 후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공연의 회차별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에 마감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예매하기 클릭
2. 관람날짜 선택
3. 좌석 선택
4. 가격 선택
5. 결제
6. 현장에서 티켓수령

공연티켓 1+1 검색

공연티켓 2장을 구입하면, 그중 1장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복 캠페인
www.plusticket.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2-760-4532~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n ter-

대학로를 들썩이게 했던 '공원은공연중'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마지막 프로젝트 '당신의 악기를 가져오세요'와 대학로의 평범했던 공간을 멋진 공연장으로 바꾸었던 '팝업시어터'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예술자료원의 기록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열다섯 번째 이야기는 '리메이크 연극을 돌아보다'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스테디 공연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연예술센터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10월 한 달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소식들과 풍성했던 지난 10월의 공연만큼 다양한 독자 리뷰도 잊지 말고 체크해보세요.

1

재즈밴드와 시민들이 만든 잼 콘서트

〈당신의 악기를 가져오세요〉

2015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공연예술의 에너지로 가득 채웠던 [공원은공연중]의 마지막 프로젝트 〈당신의 악기를 가져오세요〉가 지난 10월 11일 주말 저녁 시민들과 함께했다. '재즈파크빅밴드'의 신나는 재즈음악이 공원 안에 울려 퍼지고, 여기에 숨겨두었던 시민들의 연주 실력이 더해져 깊어가는 가을밤, 대학로에 근사한 앙상블을 선사했다.

사진 옥상훈





〈당신의 악기를 가져오세요〉

마로니에공원

2015. 10. 11(일) 5pm



먹구름 낀 하늘이 결국 공연 시작 5시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치다 말다를 반복하는 빗줄기와 함께 관객들도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무대 맨 앞쪽 옹기종기 모여앉은 사전참가자 분들은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공연을 빛내주었다.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에서의
〈퍼니밴드〉 공연

2

공연이 있다면 그곳이 곧 무대

〈팝업시어터〉

지난 10월의 화창한 주말 '어느 곳이든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획된 〈팝업시어터〉가 혜화역 1번 출구,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와 앞마당, 대학로예술극장의 씨어터카페와 북스테이지 등 대학로 곳곳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졌다. 올해에는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공연들이 펼쳐져 대학로에 찾아온 시민들에게 평범했던 장소를 모두의 놀이터로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했다.

사진 옥상훈, 하원빈(연수단원)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15분,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에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공연 〈숨쉬듯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혜화역 1번 출구 횡단보도를 무대로 변신시켰던 위치 프로덕션의 공연 〈춤추는 횡단보도〉



〈팝업시어터〉

대학로 곳곳
2015. 10. 17(토) ~ 10. 18(일)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김보람



색다른 경험, '관극가이드'

공연예술과 좀 더 가깝고,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

'극장은 내친구' 관극가이드 10월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는 10월 9일부터 28일까지 7개교 18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총 9회차에 걸친 공연관람을 지원했다. 특별히 극단 동의 '상주국수집'과 극단 대학로극장의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공연을 관람한 친구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각각 10월 9일과 17일에 진행됐던 이 프로그램에는 총 75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공연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즐거웠던 관극에 강량원, 이우천 연출가와의 특별한 만남까지 더해져 청소년들에게는 공연예술에 대해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 이우천 연출가



◂ 강량원 연출가

상주국수집

극단 동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5. 10. 9(금) ~ 10. 13(화)

색다른 이야기 읽기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극단 대학로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2015. 10. 17(토) ~ 10. 21(수)

※ [극장은 내친구]의 '관극가이드'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고 다양한 공연예술경험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과 예술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의 사업입니다.

리메이크 연극을 돌아보다

이 지면은 예술자료원 소장자료 중 공연예술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는 '기록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연재 코너입니다. 예술자료원은 현장예술의 특성을 살려 무대와 객석의 열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극적, 영화적 상상력
리메이크 연극을 돌아보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연극 〈만추(晩秋)〉 공연이 한창이다. 1966년 이만희 감독을 시작으로 1981년 김수용 감독, 2010년 김태용 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그간 여섯 번 리메이크 되었고, 일곱 번째는 연극으로 제작되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일례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연극뿐만 아니라 구로자와 아키라의 〈거미의 성(Throne of Blood)〉, 로만 폴란스키의 〈맥베스〉, 오슨 웰즈의 〈맥베스〉 등의 영화나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와 비교해서 보면, 하나에서 느끼지 못한 다양한 해석의 재미와 구성의 차별성, 혹은 새로운 세계관이나 미장센과 마주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국내 연극이 영화로, 혹은 영화가 연극으로 리메이크된 작품을 찾아보고, 예술자료원의 소장 자료를 소개한다.

글 김현옥(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학예사)



연극 〈날 보러 와요〉 포스터, 악어컴퍼니, 2003.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2003.

연극 〈날 보러 와요〉와 영화 〈살인의 추억〉

김광림 작, 연출의 연극 〈날 보러 와요〉는 미궁에 빠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1996년 극단 연우무대에 의해 초연되었다. 작가는 관객이 많이 들면 범인도 보러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제목을 〈날 보러 와요〉로 정했다고 한다. 19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은 스릴과 공포로, 형사들의 세계는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다. 1996년 백상예술대상 희곡상과 1996년 서울연극제 작품상을 받았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송강호, 김상경 등이 열연해 영화도 흥행에 성공한다. 봉준호는 이 영화로 2003년 산세바스찬영화제에서 감독상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토리노영화제 각본상 등을 받는다. 자료원에는 1996년 제20회 서울연극제 공연 영상, 대본, 프로그램 등 18건의 자료와 무대스케치(디자인 박동우) 10점을 소장하고 있다.

대학로 최고 흥행 연극 〈라이어〉와 영화 〈라이어〉

영국 레이 쿠니(Ray Cooney)의 작품 'Run for Your Wife'를 원작으로 한 연극 〈라이어〉는 1998년 국내에서 초연된 이래,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학로의 대표적인 '대중적' 코미디 연극이다. 두 부인을 둔 택시 운전사가 강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거짓에 거짓을 보태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기막히고 절묘하게 다룬다. 2004년 김경형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주진모, 공형진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웃음의 코드가 맞는 소수의 관객에게는 호평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웃음의 강도 높은 전염성과 현장의 분위기가 극의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연극이다. 자료원에는 〈라이어〉 1탄과 2탄의 포스터, 프로그램, 대본 등 9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연극 〈이(爾)〉와 영화 〈왕의 남자〉

2000년 문예회관 대극장(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초연된 김태웅 작, 연출의 연극 〈이(爾)〉는 연산으로부터 '이(爾)'라는 호칭을 받으며 사랑을 받았던 궁중 광대 '공길', 갖은 기행과 학살을 자행한 '연산군'과 그의 후궁 '녹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재담과 익살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연희 방식인 '소학지희(笑謔之戲)'를 활용한 점도 흥미를 더한다. 초연 당시 동아연극상 작품상, 평론가협회선정 베스트 3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은 2005년 이준익 감독, 감우성, 이준기, 정진영, 강성연 주연의 〈왕의 남자〉로 리메이크된다. 광대들의 자유와 신명을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했고, 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7년에는 연극 〈이(爾)〉를 골자로 이윤택 대본, 남미정 연출, 강상구 작곡의 뮤지컬 〈공길전〉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자료원은 연우무대, 서울예술단 공연 등의 공연 대본, 영상, 프로그램, 포스터 등을 40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연극 〈라이어〉 1탄 포스터, 파파프로덕션, 2003.



영화 〈라이어〉 포스터, 2004.



연극 〈이〉 포스터, 극단 우인, 2005.



영화 〈왕의 남자〉 포스터, 2005.

연극 〈웰컴 투 동막골〉과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장진 작, 연출의 연극 〈웰컴 투 동막골〉은 2002년 LG아트센터에서 초연되었다. 1950년, 전쟁도 이념도 비켜 간 강원도 태백 산간 마을에 연합군의 전투기가 떨어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전쟁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꿈꿀 수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휴먼코미디 연극이다. 신하균, 정재영, 임원희, 윤주상, 정규수, 류덕환 등 쟁쟁한 배우들의 출연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영화로는 2005년 제작되었고 감독은 박광현이 맡았다. 정재영, 신하균, 류덕환 등 연극에 출연했던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강혜정이 열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판타지적 설정과 감정의 몰입을 높인 영화 음악도 흥행몰이에 한몫을 더했다. 이 영화로 박광현 감독은 여러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강혜정은 여우조연상을 받는다. 작가, 연출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은 2000년 〈박수칠 때 떠나라〉(LG아트센터)를 연극무대에 올렸고, 2005년 직접 영화 감독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자료원에는 장진 희곡집과 시나리오집을 포함해 관련 포스터, 프로그램 등을 소장하고 있으나 영상 자료는 소장하고 있지 않다.

연극 〈해무〉와 영화 〈해무〉

연극 〈해무(海霧)〉는 연우무대 창단 30주년 맞아 2007년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극본을 쓴 김민정은 2001년 밀입국자를 태우고 여수로 들어오던 어선 태창호의 어창(魚艙) 환기구가 막히는 바람에 그 안에 타고 있던 중국인과 조선족이 대거 질식사한 실화를 모티브로 극본을 썼다고 한다. 연출은 안경모가 맡았다. 이후 2008년, 2009년, 2011년에도 재공연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4년에는 심성보 감독, 김윤석, 박유천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인물 간의 개연성이나 캐릭터가 비교적 사실적이었던 연극에 비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 및 지나친 광기로 오히려 몰입을 방해했다는 평이 많았다. 자료원에는 연우무대의 공연 대본, 공연 영상, 포스터, 프로그램 등 10여 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연극 〈해무〉 포스터, 연우무대, 2011.



영화 〈해무〉 포스터, 2014.

예술자료원
Arko Arts Archiv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본원 (예술의전당 내)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3층 TEL. 02-524-9435
분원 (대학로)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예술가의집 2층 TEL. 02-760-4595~7



몽골예술위원회 대표단 기관교류 방한

지난 10월 15일 몽골예술위원회 Ayurzana Gunaajav 위원 이하 5명의 대표단이 기관교류를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를 방문했다. 몽골예술위원회는 2002년 설립된 몽골의 대표적인 민간 예술지원기구로, 몽골 예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이해를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몽골 문화기획인력 및 예술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 이슈들에 대해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고취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대표단은 공연예술센터의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시설들을 둘러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간 교류협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문화융성의 활로가 개척되길 기대한다.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제12회 젊은 비평가상 모집

SPAF는 제12회 젊은 비평가상을 통해 미래의 비평가들이 현대 공연예술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경향과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평가하여 한국 공연예술의 내일을 이끌어 가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젊은 비평가상을 모집한다. 공연예술 장르 비평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2015 SPAF 초청작을 대상으로 한 비평문을 응모받고 있다.

응모기간 : 2015. 11. 2(월) ~ 11. 27(금) 18 : 00까지
응모자격 : 만 45세 이하의 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장르 비평에 관심이 있는 자
(단, 이미 등단 혹은 활동 중인 작가·평론가는 제외하며, 과거 젊은 비평가상 지원 경험이 있는 참가자도 지원 가능함)
응모작품 :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식초청작을 대상으로 한 비평
(다수 작품에 대한 비평도 가능함)
응모분량 : 작품당 원고지 50매 내외(A4 4~6장)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와 원고를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발 표 : 2015. 12(예정)
시 상 : 소정의 상금 증정(세부 시상내역 추후 공지)
문 의 : 02-3668-008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한영국문화원이 함께한 한 – 영 댄스토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한영국문화원은 동시대 무용예술 분야에서 한영 교류를 다변화하고자 국내외 프로듀서와 안무가들을 초청했다. 영국의 대표적 무용전문극장인 더 플레이스의 프로듀서 엘리 비드햄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크람칸 컴퍼니의 프로듀서 파룩 초드리, 그리고 영국의 떠오르는 신예 안무가 제임스 커즌스가 함께해 2015년 10월 14일 예술가의 집에서 한영 무용 창작 생태계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하고 발전적인 무용 창작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무용예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이번 한영댄스토크는 예술가 발굴, 창작 지원, 유통, 관객 개발 등을 논의하고 파트너쉽을 모색하는 등 향후 한국과 영국의 협업 모델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일상의 다양한 소리현상 아르코미술관 〈소리공동체〉전

아르코미술관에서 11월 15일까지 〈소리공동체〉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소리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공동체 일상에서 발언되는 '말과 글의 소리', 신체와 사물이 공명하는 '진동의 음파', 땅과 인간이 함께 엮어내는 '화음과 잡음' 등을 매개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반추한 현재의 공동체 삶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김다움, 김준, 박준법, 백현주, 장민승, 정재일, 조혜진 등 젊은 예술가 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삶의 울림, 인간의 언어', '대지의 리듬' 등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코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소리와 더불어 행하는 공동체와의 소통을 주제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술관이라는 예술 공간이 창의적인 문화 공동체의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을 위한 예술적·사회적 역할 수행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함께하는 '2015 희망나눔 바자회' 열려

지난 10월 23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에서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함께 2015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금번 바자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과 구세군에서 기부받은 물품들이 한데 모여 새 주인을 찾았다. 직원들은 바자회 당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의류, 잡화, 도서, 유아용품 등을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바자회는 판매가 종료된 후 판매수익을 구세군측에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은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을 나눔과 배품으로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대학로 주요공연 캘린더

11월에 시작하는 공연

가면,몸,마임 드라마
기간 15.11.06 ~ 15.11.08
시간 금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장소 대학로 스타시티 TM스테이지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연출 유진규 · 유홍영 · 고재경
10세이상 | 90분 | 764-7462

검군전 劍君傳, 후 後 드라마
기간 15.11.25 ~ 15.11.29
시간 수~금 20:00 주말 16: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예술공간 오르다
가격 전석 20,000원
작 김진 **연출** 차병호
16세이상 | 90분 | 070-7572-6484

고재경의 잠깐만 드라마
기간 15.11.02 ~ 15.11.04
시간 평일 20:00
장소 대학로 스타시티 TM스테이지
가격 비지정석 20,000원
작·연출 고재경
10세이상 | 90분 | 764-7462

꼬리솜 이야기 드라마
기간 15.11.06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예술마당 2관홀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연출 이상우
14세이상 | 140분 | 747-1010



라면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1.05 ~ 15.12.31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6:00 월 쉼
장소 마당세실극장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연출 김두환
15세이상 | 90분 | 6083-2221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캐롤
기간 15.11.24 ~ 15.12.27
시간 평일 14:00 주말 11:00 13:00 월 쉼
장소 소리아트홀 2관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2022

모로코 사람들에게 가기 드라마
기간 15.11.17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4:00 18:00 일 15:00 월 쉼
장소 혜화 최일화스튜디오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 극단 혜화 **연출** 김영무
16세이상 | 120분 | 3436-7777



분장실 드라마
기간 15.11.06 ~ 15.11.08
시간 금 20:00 주말 15:00 18:00
장소 서완소극장
가격 전석 20,000원
작 시미즈 쿠니오 **연출** 김기수
8세이상 | 100분 | 010-9001-2774

빨간모자를 부탁해
기간 15.11.03 ~ 15.11.22
시간 평일 11:00 주말 11:00 12:30 월 쉼
장소 여우별씨어터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9981

빼꼼의 크리스마스 대소동
기간 15.11.25 ~ 15.12.27
시간 평일 14:00 주말 11:00 13:00
장소 소리아트홀 1관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2022

사중주 드라마
기간 15.11.06 ~ 15.11.29
시간 평일 20:00 주말 16:00 (11.17▶쉼)
장소 게릴라극장
가격 전석 30,000원
작 하이너 뮐러 **연출** 채윤일
16세이상 | 80분 | 763-1268

상업무지(無地)컬-두근두근 내사랑 드라마
기간 15.11.11 ~ 15.11.15
시간 수~금 20:00 주말 15:00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가격 전석 20,000원
작 김수정 · 김연재 **연출** 김수정
13세이상 | 80분 | 070-8276-0917

세종이도의 꿈
기간 15.11.06 ~ 15.11.22
시간 금 14:00 토 11:00 13:00 일 13:00 월~목 쉼
장소 소리아트홀 2관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2022

소나기2 드라마
기간 15.11.11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스튜디오 SK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연출 강재림
15세이상 | 70분 | 734-7744

쓰루 더 도어 (Through the Door) 드라마
기간 15.11.05 ~ 15.12.31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쉼
장소 대학로 자유극장
가격 전석 50,000원
작 차근호 **연출** 임길호
8세이상 | 100분 | 2231-1433

신데렐라
기간 15.11.01 ~ 15.11.22
시간 금 14:00 주말 11:00 13:00 월~목 쉼
장소 소리아트홀 3관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2022

어린이 캣's
기간 15.11.01 ~ 15.11.29
시간 수~금 · 11.24 14:00 주말 11:00 13:00 월 · 화 쉼 (11.21~22▶12:00)
장소 소리아트홀 1관
가격 일반석 20,000원
24개월이상 | 50분 | 766-2022

엘리펀트송 드라마
기간 15.11.13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8:00 일 14:00 17:00 월 쉼
장소 수현재씨어터
가격 일반석 55,000원
작 니콜라스 빌런 **연출** 김지호
14세이상 | 90분 | 3672-0900

오델로 니그레도 드라마
기간 15.11.11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6:00 월 쉼
장소 문화공간 엘림홀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 W.세익스피어 **연출** 송형종
16세이상 | 90분 | 010-8740-8380

이방인 드라마
기간 15.11.03 ~ 15.11.15
시간 평일 19:30 토 15:00 19:30 일 16:00
장소 예술공간 오르다
가격 자유석 30,000원
작 알베르 까뮈 **연출** 김정이
16세이상 | 140분 | 010-9346-7852

인생은 꿈 드라마
기간 15.11.18 ~ 15.12.06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여우별씨어터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 페드로 칼데론 데 라 바르카
연출 반무섭
14세이상 | 120분 | 889-3561

일반인 출입금지 드라마
기간 15.11.03 ~ 15.11.05
시간 화~목 19:00
장소 소극장 혜화당
가격 자유석 15,000원
작·연출 맥놀이
20세이상 | 100분 | 6409-4208

위대한 캣츠비 [RE:BOOT] 드라마
기간 15.11.07 ~ 16.01.31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쉼
장소 유니플렉스 1관
가격 VIP석 77,000원 R석 66,000원 S석 55,000원
작 이다윗 **연출** 변정주
16세이상 | 150분 | 1666-5795

제3회 New play league 드라마
기간 15.11.04 ~ 15.11.22
시간 수~금 20:00 토 15:00 19:00 일 16:00 월 · 화 쉼
장소 예술공간 서울
가격 일반석 20,000원
연출 송형종
전체관람가 | 90분 | 010-3344-6880

조니워커블루스 드라마
기간 15.11.04 ~ 15.11.08
시간 평일 20:00 주말 15:00 월 · 화 쉼
장소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가격 전석 20,000원
작·연출 송경화
13세이상 | 70분 | 070-8276-0917

진지한 농담 드라마
기간 15.11.11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6:00 화 쉼
장소 노을소극장
가격 전석 25,000원
작 드미뜨리 립스께르프 **연출** 이돈용
16세이상 | 80분 | 070-7562-9980

한여름 밤의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마
기간 15.11.17 ~ 15.11.22
시간 평일 20:00 토 16:00 20:00 일 16:00
장소 예술공간 오르다
가격 자유석 30,000원
작 W.세익스피어 **연출** 채승훈
13세이상 | 90분 | 010-2602-5517



호스피스 드라마
기간 15.11.05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8:00 일 15:00 월 쉼
장소 알과핵 소극장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 김민정 **연출** 강민재
17세이상 | 90분 | 734-7744

화순 드라마
기간 15.11.04 ~ 15.11.08
시간 수~금 20:00 토 16:00 19:00 일 16:00
장소 문화공간 엘림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류성
14세이상 | 90분 | 734-7744

환도와 리스 드라마
기간 15.11.04 ~ 15.11.08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6:00
장소 동숭무대 소극장
가격 일반석 10,000원
작 페르난도 아라발 **연출** 한상웅
16세이상 | 80분 | 010-9005-7011

11 공간
나만의 서이로, 내가 가장 예쁘을 담배가에 이것

호객 행위 없는 깨끗한 대학로! 좋은 관객이 만듭니다

01
보고 싶은 공연을 미리 예매하고 공연장을 찾습니다.

02
당일티켓을 반드시 서울연극센터, 좋은공연안내센터 및 각 공연장의 티켓박스에서 구입합니다.

03
호객행위 공연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맨 아랫줄은 관람연령, 공연시간, 문의처입니다.

연극

결혼 드라마
기간 15.10.22 ~ 15.11.08
시간 평일 20:00 주말 15:00 18:00 월 쉼
장소 스튜디오SK
가격 자유석 30,000원
작 이강백 **연출** 홍석환
13세이상 | 70분 | 734-7744

그남자 그여자 로맨틱 코미디
기간 15.07.10 ~ open run
시간 평일 20:00 토 · 공휴일 15:00 18:00 일 15:00 월 쉼
장소 소리아트홀 2관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 이미나 **연출** 정진국
9세이상 | 90분 | 766-2022

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드라마
기간 15.10.02 ~ 15.11.22
시간 화 · 목 · 금 20:00 수 15:00 20:00 토 15:00 18:00 일 15:00 월 쉼
장소 예그린씨어터
가격 전석 40,000원
작·연출 오승수
9세이상 | 95분 | 070-8836-6235

ㄷ

두 여자 스릴러
기간 15.01.09 ~ open run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8:00 일 15:00 월 쉼
장소 라이프 씨어터
가격 일반석 25,000원
작 서상우 **연출** 김원진 · 서상우
14세이상 | 90분 | 070-8151-6416

ㅁ

몽타주 스릴러
기간 15.02.04 ~ open run
시간 화~목 20:00 금 17:00 20:00 토 16:00 19:00 일 15:00 18:00 월 쉼
장소 낙산씨어터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김세환
13세이상 | 100분 | 010-3728-6879

ㅂ

배꼽 코미디
기간 15.07.24 ~ open run
시간 평일 17:00 20:00 토 14:00 16:30 19:00 일 13:00 15:30 18:00 월 쉼
장소 JK아트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 김빛나는별 · 남상호 · 김성규
연출 남상호 · 김성규
8세이상 | 80분 | 010-4884-7271

버스는떠났다 드라마
기간 15.10.29 ~ 15.11.15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6:00 화 쉼
장소 여우별씨어터
가격 비지정석 25,000원
작·연출 조성진
12세이상 | 90분 | 747-5296

변태 드라마
기간 15.10.01 ~ 15.12.31
시간 평일 20:00 주말 16:00 월 쉼
장소 연우소극장
가격 전석 35,000원
작·연출 최원석
19세이상 | 120분 | 1566-5588

병자삼인 코미디
기간 15.10.27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7:00 월 쉼
장소 피카소소극장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극단 끝판
16세이상 | 70분 | 010-3511-5897

뷰티풀 선데이 드라마
기간 15.10.15 ~ 15.11.13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한양레퍼토리씨어터
가격 일반석 35,000원
작 최형인 · 김성근 **연출** 조한준
13세이상 | 120분 | 1644-5210

ㅅ

사랑 하고싶다 코미디
기간 15.05.23 ~ open run
시간 평일 17:00 20:00 주말 14:00 16:00 18:00 월 쉼
장소 연진아트홀
가격 비지정석 40,000원
작 김민영 **연출** 이양우
13세이상 | 90분 | 010-6698-1912



삼봉이발소 드라마
기간 115.05.01 ~ open run
시간 화 · 수 17:00 20:00 목 · 금 15:00 17:10 주말 14:00 16:10 월 쉼
장소 위로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 하일권 **연출** 진종현
8세이상 | 80분 | 070-8600-8342

헬위키스 드라마
기간 15.10.23 ~ 15.11.15
시간 평일 20:00 토 18:00 일 16:00 월 쉼
장소 가든씨어터
가격 비지정석 30,000원
작 노승탁 · 유수미 **연출** 이준
15세이상 | 100분 | 010-9880-8983

ㅇ

아리랑 랩소디 드라마
기간 15.10.06 ~ 15.11.08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8:00 일 15:00
장소 극장 동국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김경익
전체관람가 | 100분 | 070-8776-1356

어린신부 로맨틱코미디
기간 15.05.01 ~ open run
시간 화 17:00 20:00 수~금 20:00 주말 19:00 월 쉼
장소 댈로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 성하 **연출** 진종현
11세이상 | 90분 | 070-8600-8342

엄마 드라마
기간 15.10.29 ~ 15.11.22
시간 평일 19:30 토 15:00 19:00 일 16:00 월 쉼
장소 효천아트센터 그라운드 씬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김순영
9세이상 | 100분 | 070-8285-4286

연애는 괴로워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0.03 ~ 16.02.28
시간 평일 20:00 토 17:00 19:00 일 17:00 수 쉼 (11.1▶16:30 19:00)
장소 정보소극장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박상준
13세이상 | 90분 | 1661-6981

연애의 목적 로맨틱코미디
기간 15.07.17 ~ open run
시간 평일 17:30 20:00 토 15:00 17:10 19:15 일 14:00 16:10 18:15
장소 올래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조행덕 · 정승환
14세이상 | 100분 | 764-8760

연애의 정석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0.30 ~ 15.11.29
시간 평일 20:00 토 16:00 19:00 일 15:00 18:00 월 쉼
장소 굿씨어터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 송창민 **연출** 오리라
13세이상 | 90분 | 1566-5588

올드위키드송 드라마
기간 15.09.08 ~ 15.11.22
시간 평일 20:00 금 16:00 20:00 토 · 11.22 15:00 19:00 일 15:00 월 쉼
일 15:00 월 쉼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가격 R석 55,000원 S석 35,000원
작 마란스 **연출** 김지호
14세이상 | 140분 | 3490-9351

제14회 오프 대학로 페스티벌 드라마
기간 15.10.13 ~ 15.11.29
시간 평일 19:30 토 15:00 19:00 일 16:00 월 쉼
장소 세우아트센터
가격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작 김봉민 **연출** 조선형
13세이상 | 90분 | 070-4203-7789

가격 전석 20,000원
작·연출 공연별상이
전체관람가 | 80분 | 764-7606

조각:사라진기억 스릴러
기간 15.06.29 ~ open run
시간 월 17:00 20:00 수 15:00 목 · 금 20:00 주말 19:00 화 쉼
장소 위로홀
가격 전석 30,000원
작·연출 진종현
14세이상 | 70분 | 070-8600-8342

ㅊ

챠이카 드라마
기간 15.10.01 ~ 15.12.31
시간 평일 19:30 주말 16:00 월 쉼
장소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가격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작 안톤 체홉 **연출** 전호
11세이상 | 130분 | 742-7753

ㅌ

텐(TEN);열흘간의 비밀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0.30 ~ open run
시간 월 20:00 화~금 17:00 토 12:00 일 쉼
장소 예술공간 유비누리 앱질 전용관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연출 이주영
11세이상 | 100분 | 766-0830

ㅎ

행복 드라마
기간 15.08.01 ~ open run
시간 화~목 20:00 금 17:00 20:00 토 15:00 17:30 20:00 일 15:00 18:00 월 쉼
장소 단막극장
가격 일반석 30,000원
작 이선희 **연출** 정세혁
13세이상 | 90분 | 1661-6981

형제의밤 코미디
기간 15.10.06 ~ 15.12.31
시간 평일 20:00 주말 · 16:00 19:00 월 쉼
장소 세우아트센터
가격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작 김봉민 **연출** 조선형
13세이상 | 90분 | 070-4203-7789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드라마
기간 15.09.18 ~ 15.12.06
시간 평일 20:00 주말 15:00 19:00 화 쉼
장소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가격 R석 55,000원 S석 45,000원
작 이희준 **연출** 최성신
15세이상 | 110분 | 749-9037

ㄷ

달콤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0.23 ~ 15.12.31
시간 월 · 목 · 금 · 11.11 20:00 토 15:00 19:00 일 17:00 화 · 수 쉼
장소 한성아트홀 1관
가격 일반석 40,000원
작·연출 김준희
8세이상 | 100분 | 2231-1433

당신만이 드라마
기간 15.04.03 ~ open run
시간 수~금 20:00 토 15:00 18:30 일 15:00 월 · 화 쉼
장소 한성아트홀 2관
가격 전석 40,000원
작·연출 위성신
미취학아동입장불가 | 120분 | 070-8245-2602

드가장 로맨틱코미디
기간 15.10.16 ~ 15.12.30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쉼
장소 예술마당 4관
가격 전석 50,000원
작 이동규 **연출** 신유청
19세이상 | 100분 | 588-7708

ㄹ

무한동력 드라마
기간 15.09.04 ~ 16.01.03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8:00 일 14:00 17:00 월 쉼
장소 대학로 TOM 1관
가격 R석 60,000원 S석 50,000원
작 이지혜 **연출** 박희순
8세이상 | 105분 | 6004-6994

ㅂ

빨래 드라마
기간 15.06.16 ~ 16.02.28
시간 수 16:00 20:00 목 · 금 20:00 토 · 10.9 15:00 19:00 일 16:00 월 · 화 쉼
장소 동양예술극장 1관
가격 전석 50,000원
작·연출 추민주
14세이상 | 160분 | 928-3362

ㅅ

상자 속 흡혈귀 드라마
기간 15.10.23 ~ 15.12.31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쉼
장소 SH아트홀
가격 R석 55,000원 S석 44,000원
작 김나정 **연출** 이용균
14세이상 | 110분 | 744-5442

ㅇ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드라마
기간 15.09.04 ~ 16.02.28
시간 평일 20:00 토 · 14:00 17:00 20:00 일 14:00 17:00 월 쉼
장소 예술마당 3관
가격 일반석 45,000원
작·연출 장유정
11세이상 | 110분 | 790-7090

ㅍ

풍월주 드라마
기간 15.09.08 ~ 15.11.22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쉼
장소 쁘띠첼 씨어터
가격 R석 55,000원 S석 44,000원
작 정민아 **연출** 김동연
15세이상 | 110분 | 749-9037

ㅎ

화랑 드라마
기간 15.10.08 ~ open run
시간 평일 20:00 토 15:00 19:00 일 15:00 월 쉼
장소 브로드웨이 아트홀 3관
가격 R석 45,000원 S석 30,000원
작 이오진 **연출** 성천모
8세이상 | 110분 | 1566-5588

Thank U 드라마
기간 15.10.28 ~ 15.11.15
시간 평일 20:00 주말 16:00 19:00 월 쉼 (11.15▶16:00)
장소 소리아트홀 1관
가격 R석 50,000원
작·연출 정은미
미취학아동입장불가 | 100분 | 010-2140-9116

아동극

오즈의 마법사
기간 15.10.31 ~ 15.12.31
시간 평일 11:00 주말 11:00 13:00 월 쉼
장소 한성아트홀 2관
가격 VIP석 70,000원 A석 10,000원
24개월이상 | 60분 | 712-7080

ㅎ

훈장 개똥이
기간 15.10.06 ~ 15.12.31
시간 화 · 목 14:00 수 · 금 11:00 14:00 토 11:00 13:00 일 14:00 월 쉼
장소 세우아트센터
가격 비지정석 20,000원전석
24개월이상 | 60분 | 921-9871

11월의 관람후기

Letter from Audience

즐거운 축제와 색다른 공연으로 가득했던 대학로의 10월 공연 리뷰

연극 〈햄릿_아바따〉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대표적인 비극 햄릿을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기운을 적절히 버무린 광대극으로 훌륭하게 풀어냈다! 극 초입에 낭독되는 글귀와 막을 여닫는 바울가수의 노래는 공연장 안의 공기를 휘어잡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죽음과 탄생, 상실과 복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시선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혼란 후 자리 잡는 질서, 다시 그 뒤를 이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혼란, 그 반복의 고리에 대해 사색하게 한다. 전 출연진과 연출, 제작진의 멋진 화합이 '웃는 얼굴이지만 진정으로 웃고 있지 않은 햄릿'을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깊이감'으로 표현해냈다.

– 관객 한*실 님

연극 〈상주국수집〉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투명인간〉 과 〈쉬또 젤라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작했던 극단 동의 작품이다. 2011년, 국립극단 소극장 판 에서 초연을 했던 공연이다. 무대는 경북 상주의 직접 면을 뽑아서 만드는 소규모 국수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딸의 얘기이다. 간결한 대사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흐름을 놓치기 쉽다. 긴 공백과 여운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은 있지만 조금 지루함을 준다.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일까?

– 관객 이동* 님

연극 〈러브〉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청소년이 보지 못하는 청소년 극, 하지만 출연배우들이 청소년의 나이 대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들의 외모나 연기로 나이 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했고 부서질 듯 연약했고 무모했으며 그리고 아파했다. 세상의 관심이 필요했던 소외받은 그들. 외국작품이라 그런지 부분 부분 어색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멋졌다. 특히 김소진 배우는 점점 더 기대된다.

– 관객 류경* 님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잘나가는 직장인의 알짜배기 월급통장
직장인우대종합통장
※ 1인 1계좌 가입가능

급여이체하고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면제(5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로 다른 은행 이체 시 수수료 면제(10회)
-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 없음)

※ 급여이체는 '최근 1개월간(전월말 기준) 건별 5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개월간 (전월말 기준)건별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규일~최초 3개월이 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는 해당기간 동안의 총 면제 횟수, 그 이후부터는 월 면제 횟수임

잘나가는 직장인의 알짜배기 재테크방법
직장인우대적금

월 급여는 정액적립, 보너스는 추가적립으로 불리기!
-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장점을 통장 하나에 결합
- 이사, 결혼, 출산, 창업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율이 아닌 기본이율로 부담없이 해지(계약기간 1/2 이상 경과한 계좌)

※ 금리:1년제 기준 연 2.4%~연 2.9%(2014.11.18 기준, 세금공제 전)
연 2.4%(1년제)+연 0.3%p(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30만원 이상 KB국민카드 사용 시 우대)
+연 0.1%p~연 0.2%p(제휴통신사 우대)
※ 급여이체/카드사용 실적은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1개월 이상 인정 시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각 상품의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공하며, 특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621호(2014.11.20)

behind

무대 뒤에서 만난 사람 ⑨

공연예술센터 문화자원봉사자
왼쪽부터 배성희, 손옥희, 조영남



"저희는 문화와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아 문화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공연장에 나와 물품보관소에서 관객들의 짐을 맡아드리거나 객석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공연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늘 뿌듯합니다.
가사 일에 바쁜 주부들이지만 평소 좋아하는 문화 현장에 함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저희를 힘나게 하지요."

© 이도영



대학로의
유일한 공연예술서점

대학로예술극장 안에
자리한 공연예술서점 북스테이지,
단순한 서점을 넘어
무대와 소통하는 예술공간으로서
꾸준히 걸음하려 합니다.

book stage
북스테이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